



연초록 물결로 이어지는 봄의 악동

〈사진 李五峰는설위원〉

관악에 활짝 핀 봄 ‘3不’의 걸림돌에도...



세계 상위권 향한 몸부림

40개국 4백78개 대학과 국제 학술교류협정 체결

모교 대외협력본부(본부장 宋虎根)는 지난 4월 19일 모교의 해외 학술교류협정 현황을 종합 발표했다.

그동안 모교는 대학 총장이 대표가 되어 체결한 국제교류만 집계해 1백20개 대학과 학술교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과대학과 연구기관에서 40개국 4백78개 대학과 유요한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대학간에 맺어진 이른바 ‘본부 협정’은 35개국 1백18개 대학이며, 이 중 82개 대학과는 학생교류 협정도 체결됐다.

모교 경영대와 듀크대 MBA간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단과대학간에 맺어진 학술교류협정은 30개국 2백25개 대학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중 84개 대학은 학생교환이 가능하다.

모교 연구기관들도 1995년 국토문제연구소가 파리소르본대학과 협정을 맺은 이래 현재 20개

국 1백35개국과 학술교류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8개국과 연구원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발표된 학술교류협정을 보면 독일의 본대학, 프랑스의 그랑제콜, 호주 시드니대학 등 세계 곳곳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모교 학술협정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단과대학간의 학술교류도 눈에 띄는데, 스텐포드공대-모교 공대, 히버드치대-모교 치대 등 많은 해외 우수대학들이 모교와 교류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단과대학 단위의 교류협정 및 학생교환은 경영대, 공대, 농대, 국제대학원, 치대에서 특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 모교와 가장 많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곳은 미국이며 대학간 21개, 단과대학 10개, 연구기관간 51개를 합쳐 82건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관악춘추

최근 서울대 총장과 교수의 발언을 교육부 장관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반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을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재반박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정부의 소위 3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둘러싸고 대학과 정부 간에 긴장이 팽팽하다. 단 순히 회의석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회견·인터뷰·성명 등을 통한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인 공방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공무원인 서울대 총장과 교수가 감도 없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대드는 이런 뜻밖의 일이 왜 일어났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서울대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不 정책 아래에선 서울대가 말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에 총장과 교수들이 나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서울대가 위축되고 허약코스로 접어든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지도 않거나와 가르칠 학생을 학교가 스스로 선발할 권리로 박탈되었다. 뽑은 학생이 우수한지 아닌지 학

‘3不’이 가리는 관악의 봄

교는 알아볼 방법도 없이 학생을 뽑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다른 대학과 실력 차별이 안 되는 서울대, 나아가 상당한 분야에서 다른 대학보다 못해지는 서울대라는 슬픈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맞아 서울대 총장과 교수가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게 더 큰 일일 것이다.

지금 관악 교정에는 봄꽃이 화려하다.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 벚화, 목련, 벚꽃이 피고 지고, 라일락, 철쭉이 아우러졌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꽃이 아름다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득 60년대 초 故 李健熙교수님이 영분과 학생들에게 보다는 속제 생각이 난다. 꽃이 만발하고 사람들이 들뜨는 화창한 봄날씨에 교수님이 영동하게 ‘봄날의 우수’라는 글을 써오라는 속제를 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더라도 우수가 없을까. 동충동 그 시절보다 관악에 더 많은 꽃이 피지만 서울대의 위상과 자신감도 그리할까.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는 3不 정책을 우려하는 광범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서울대는 그 압도적 비중 때문에 의견 표시에 늘 신중했지만 이전엔 더 이상 점잔만 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가 뽑고, 서울대가 가르치고, 서울대가 배출하는 자를 뽑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총장과 장기발전위원장이 밝힌 의견을 동창회도 적극 지원함은 물론이다.

(宋鍾赫는설위원)

트리나무팡팡

전정 같은 밤이었다.

오후 8시 반경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로부터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의 용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첫 비공식 보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회부 사립팀 기자들은 태평양 너머로 전화를 걸어 용의자의 지인을 찾는 한편 국내의 친인척을 수배하느라 말 그대로 ‘몸을 부었다’. “용의자를 한인 학생회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없다”는 버지니아공대 재학생 몇몇의 증언, “그가 외출으로 지나서 관련 정보를 찾지 않았다”는 대학 당국의 공식 코멘트... 결국 부족한 정보를 메울 소스는 현지 언론의 보도였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한 줄씩 흘러대는 정보들.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속보들은 오보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뉴욕타임스가 ‘용의자의 해어진 여자친구’로 추정보도한 첫 번째 희생자를 과연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까? 아님 경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때로 5분도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 ‘좀더 많은 이야기거리’에 대한 유혹과 ‘팩트’의 엄밀성 사이에서의 고뇌는 때론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

에 기자로서의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윤리와식으로 빠르게 판단이 쏠아 한다. 그런 윤리적 가치의 습득은 직업적인 훈련의 가장 높은 영역이자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다. 이 기초가 흔들릴 때는 그 어떤 특종이나 미담도 추악한 오보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언론은 서울대 黃禹錫 전 교수의 사건을 통해 이런 평범한 진리를 뼈아프게 깨달았다.

올 봄 모교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은 내년부터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표절방지과 연구윤리를 집중 교육하는 교양강좌를 연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대학 84%에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

가 2월 발표한 조사결과다.

대학의 윤리교육 수준은 그 사회 시민윤리수준의 척도다. 졸업 후 사회의 일원이 돼 살아갈 학생들에게 대학은 학과목 공부를 넘어서는 ‘시민적 가치’에 대한 소양을 쌓을 기회를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하버드대 윤리교육연구센터인 ‘에드먼드 J 시프라 센터’ 윤리교육과 연구는 부럽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하티르 센 교수가 커리큘럼 개발 중인 ‘사실과 윤리(facts and ethics)’를 비롯해, 의사 법률가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연구자가 현장에 맞물린 윤리기준을 연구하고 있다. 기자로서 머리 이전에 근육이 먼저 기억해내야 하는 윤리의식의 기초를 나는 모교의 강의실에서 배웠을까?

지난해 黃禹錫파동을 겪은 뒤 서울대는 연구처 산하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제능대 실험 과정의 오류와 복제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원칙은 분명하고 간단하며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대학의 졸업생들이 삶의 주요한 판단을 두고 고뇌하는 순간, 강의실에서 생각해보았던 ‘지상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책임 있는 민주주의가 일상적 영역에서 실행되는 첫 걸음이다.

대학의 윤리 교육

鄭恩玲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자만심

李秀眞(영어교육61-65)시인

몸집이 거대한

거의 무신경해보이는

젓빛 거죽을 두텁게 쓴 코끼리

사육사가 끌려주는 공을 힘껏 발로 차서

그것이 전방 10미터를 떨어진 공물 안으로

쫓아 몰아넣자

자신의 길다란 코를 감아올리며

둔중한 체구를 음악에 맞춰 흔들며, 제법

글 세리머니까지 하는 애교를 부렸다.

수천 킬로그램의 막강 당치에도

눈은 겨우 단추 구멍만 하게 달린 너석이

하! 공물을 채대로 알아본다는 것,

또한 풀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록해서 즐겁다는 듯이

인간을 꼭 빼닮은 행동을 해낸

동물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쉽게 드러내 보인

우리들의 거침없는 자만심이

열대의 코끼리 쇼 공연장 관망객들을

뜨거운 박수, 박수로 담구었다.

동문칼럼

지난 3월 5박6일로 캘리포니아 남쪽에 위치한 팜스프링 근처에 보이는 사하라 온천장에서 있었던 New Start(뉴 스타트: 여기서는 ‘업터’프로그라(합)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왔다. 로마인 다 의과대학 이준원 박사가 주관했다. 40대 초반

으로 전도가 밝아 보이는 이 박사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동대학 생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New Start란 기회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의 성인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New Start는 브람

지는 삶을 위한 생활운동 내지 원리 원칙이라고 믿는다. New Start란 단어는 Nutrition(균형 있는 건강식), Exercise(적당한 운동), Water(올바른 물의 섭취), Sun(밝은 햇빛), Temperance(절제생활), Air(신선한 공기), Rest(충분한 휴식),

Trust in GOD(참조 주 신뢰, 신앙)의 8개 단어로 두 문자로 이뤄진 말인데 우리말로는 ‘세로운 출발’이란 뜻이 된다.

New Start의 사기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성인병은 물론 남녀노소의 어떤 병이든 그 원인은 세포의 손상과 있다고 본다. 정상세포를 정상으로 유지관리하고 강화하면서 고장난 비정상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인자가 N.E.W.와 S.T.A.R.T.라고 한다.

세포가 기쁘고 건강하게 활동하면 엔도르핀, 옥시토신, P53인자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 환희와 보람을 느끼며 긍정

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상한 세포가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는 과정을 쥘라 원숭이 등 각종 동물의 실험과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 다량하게 입증하는 이준원 박사의 설명은 감동적이었다.

세포는 필요에 반응하고, 세포는 생각에 반응하며, 세포는 진리에 반응하고, 세포는 빛에 반응하며, 세포는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 과정을 화면을 통해 입증했다.

이준원 박사의 사고 바탕에는 성경이 과학보다 우월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강의 중 경우에 맞

는 성경구절 85개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이성간의 예로소 사랑, 가족간의 스토리계 사랑, 친구간의 팔리아 사랑, 창조주의 아가페 사랑의 설명은 일품이라고 느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태평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New Start를 첫째 음식(N.E.W.를 먹고), 둘째 운동(S.T.A.R.을 뛰어) 그리고 끝으로 믿음(Trust in GOD)의 세 가지로 묶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봤다.

특히 강의 중 이준원 박사가 보여준 TV의 필름 한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부시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기대되는 힐러리 여사 두 사람이 작

년 8월 전국 종교집회에서 로마인 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New Start운동을 미국 국민의 건강과 장수에 이바지하고 있음에 대해 치하하는 장면이 뇌리에 떠올랐다.

지금 다음과 같은 상상도 하고 있다. 동해 푸른 물가에 터잡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민,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FTA의 파도를 넘고 있다. 무한경쟁의 지구촌에서 보람 있는 삶과 승리의 삶의 방법으로 New Start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金泰卿
(법학52-56)
변호사

보람 있는 삶, 뉴 스타트를 생각한다

장학발달건립위원회

문화공간 논의... '건축예정가격 결정위원회' 구성

본회의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4월 17일 제11차 장학발달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축되는 장학발달의 전반적 개요 설명에 이어 음악 연주출, 미술품 전시갤러리, 명예의 전당 등 문화공간에 대한 배치와 주차장 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건축예정가격 결정위원회(이하 건결위)'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또 관악회 이사회, 동창회 상임이사회 및 부회장단 연석회의에 사공사로 임광토건을 전가키로 뜻을 모았다.

장학발달 설계를 맡은 간삼파트너스 吳美倫(미륵)사의 장학발달의 전반적인 구조와 미술품 전시갤러리, 역사상 및 연회실, 임대층과 명예의 전당, 옥상정원, 주차장 등 공간배치 및 기능에 대한 브리핑으로 이날 회의가 시작됐다.

吳美倫은 음악을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제약과 투자비용 등의 문제가 전분음악회를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대안으로 2층 역사상과 18층 명예의 전당을 음악 연주 가능한 다목적홀로 만드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의 전당을 꾸미는 작업은 미래동창회 金鳳九회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의 전당에는 건립기금 참여동문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통관 및 부모와 모교와 동창회를 상징하는 기념물 등으로 꾸며지며 방문하는 아들을 위해 간단한 음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건결위'는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尹勳煥·李相源부회장, 朴美俊감사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여기에 시공 및 적성에 관한 전문가 3~4인을 두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건결위'는 적정 도급금액 수준, 공사 견적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는 "일반 공개입찰에 부처서 시공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으나 같은 설계에 같은 건축비를 들여도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건물의 품질은 사뭇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친 본회의 林光洙회장이 '임광토건'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광토건'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박부회장은 그 이유로서 △장학발달 건립은 林光洙회장이 회장 취임 시 스스로 약속한 사업으로서 백년, 2백년이 가도 끄덕 없는 건물, 서울의 명소로 불릴 만큼 멋진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건축비가 많소 모교 표현액보다 크게 높은데, 건립기금



출연약속이 대부분 5년 분할납입에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점 △단일 林光洙회장이 맡아진 준대관 손익에 구애받지 않고 명예를 건 훌륭한 장학발달을 지어 줄 것이라 기대되는 점을 들었다.

이어 洪性大부회장은 "林光洙회장과 수의계약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들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총동창회 부회장단, 상임이사회,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주인을 받는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건립위원들은 洪性大 관악회 상임이사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연석회의와 건결위의 결과에 따라 林光洙회장에 수의계약을 건결위 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과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朴美俊감사, 許庶우부회장을 비롯해 尹勳煥·朴熙白·李相源·孔大權·李相源·辛敬雄부회장, 南九正설립위원, 金鳳九대동창회장, 徐桂淵대동창회장, 간삼파트너스 및 東熙사장 등이 참석했다. (南)

건결위원 상건례
전문위원 4명 선임

본회의 장학발달 건립과 관련, 적정 도급금액 수준과 공사 견적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건축예정가격 결정위원회'가 4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상건례를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결위'는 시공 및 적성에 관한 도움을 줄 전문위원에 金鳳九(건축75-79)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金政祐(건축76-82)현대건설 상무, 李敏秀(건축76-83)모교 건축학과장, 韓壽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또 5월 2일 2차 전문위원회의와 5월 8일 2차 회의를 거쳐 장학발달 예정가에 대한 계획과 신소재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孫一根·洪性大·

尹勳煥·李相源·朴美俊등 건결위 위원과 許庶우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발달 건립기금 출연
李來源동문 1천2백만원

지난 4월 19일 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 李來源(화학교육58-62)부회장이 본회의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6백만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李來源기금장학회' 명의로 총 1천2백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金美倫동문 1천만원

지난 4월 9일 진주제일택시 金美倫(약학74졸)대표가 본회의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金美倫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해 장학발달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으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지부동창회

신임 朴源澤회장 선출

안동지부동창회(회장 宋昇澤)는 지난 4월 19일 안동시내 송남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朴源澤(법학65-69)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총무로 활동해오던 李熙載(무연69-77)동문이 제5대 안동지부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면서 새 총무로 鄭求民(식품공학72-76)동문을 선임했다.

동창회는 오는 9월 전체 친목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원동창회

장학금 증액 지급키로

대학원동창회(회장 河亨鳳)는 지난 4월 25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에서 李光洙·洪承五·金允植·金성태·韓啓俊·成百仁·李商南·崔維康부회장, 金敬眞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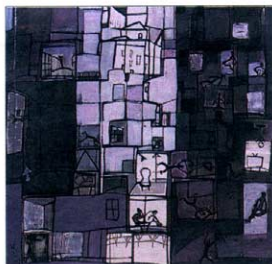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및 모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와 인회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연간 장학금도 4백만원이 늘어난 2천4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01년 이후로 재직되지 않았던 회원명부는 올해 하반기에 동문을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表)

동문 작품 전시회

劉仁洙작

<작가약력>

- ▲66~70년 모교 회화과 졸업
- ▲71~73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3년 삼파로초 비엔날레 출품
- ▲87~89년 프랑스 다종국미술학교 수학
- ▲92년 가부 국제회화제 출품, 현대미술 초대전
- ▲이년 LA 개인전
- ▲93년 제11회 개인전
- ▲94년 서울시 미술대전, 현대작가 로마전
- ▲96년 예술의 전당 KCAF전, 아시아 국제미술제
- ▲현재 상경대 예체능대학 교수



'일상적 이미지'
캔버스에 아크릴릭, 150×150cm, 2006.

朴明潤특목지장학회

대학원생에 연구비 전달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4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 朴維藩(보건학)·朴美倫(환경보건학)군에게 특목장학금으로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구비 전달은 차이사장이 지난 99년 12월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재학생에 장학금 수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澤)는 지난 4월 6일 대전시내 한식당 이리야에서 2007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吳應澤장은 이날 모교 신임장정 모(사립복지학과·대전교 졸업)·한영직(인문계열·남대전교 졸업)군에게 각각 2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대전시 삼정한정식에서 새로 부임한 법조계 동문 환영의 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吳應澤장은 "모교의 높은 브랜드와 저렴한 등록금 등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길들 때"라며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여 모교를 빛내자"고 당부했다.

또 "스포츠, 등산 등 각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의로움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대 崔熙善(교육행정61-65)총장, 공주대 金在致(화학교육75-79)총장, 대전교장 李仁奎(법학77-81)차장 겸 사·車有英(법학73-80)감사, 대전지점 金聖奎(법학75-79)감사·李維成(법학78-82)차장 겸 사·李桂成(공법81-85)부장 겸 사·劉相凡(사법84-88)부장 겸 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좌로부터 金承業·金重浩·李吉女·河權益등문

의과대학동창회

李吉女등문 등 3명 합춘대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소피텔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8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춘대상 수상자로 학윤연구부문에 가천의과대학 金承業(54-60)전직교수, 의료봉사부문에 가톨릭대 의과대학 金重浩(58-66)교수, 사회공헌부문에 경원대 李吉女(51-57 본회 부회장)총장이 선정돼 상패 및 메달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 河權益회장을 비롯한 감사와 부회장 등이 유임돼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기로 했다.

회회장은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동창회 살림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모교와 병원, 동창회의 화합된 무드가 더욱 고조될 수 있도록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모교 의대 朱維源·權壽勝영교수, 王圭彰학장, 成相哲병원장 등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졸업한 61회 동문이 10여 명 참석해 선배들로부터 따뜻한 환대

를 받았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산성서울병원 김영내과 宋在熙(77-83)교수와 모교 내과과 교신 吳明敏(77-83)교수가 '항생제 내성의 세계적 위기',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AMP동창회

南相午등문 '교수상' 수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7회 '서울대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가졌다.

金光石회장의 인사말, 모교 경영대 鄭守根학장의 축사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모교 경영학과 南相午(상학61-65)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남교수는 74년부터 모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기여했으며, 회계학 전문기로서 체신부 정책자본위원, 아시아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모교 許成道(중문68-72)교수가 '우리 역사 비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보대원동창회

한마음 봄맞이 축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煥求)는 지난 4월 14일 서울 청계산 옛 끝에서 모교 보건대학원, HPM동창회, AMPTRI동창회, 박사동우회와 공동으로 제1회 한마음 봄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본회 許 瑞사무총장,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姜 普英회장, 식품 및 의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尹煥植회장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계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朴寶蘭(보대원69-71 서울가정의원장)등문이 협찬한 소나무 씨앗을 심고, 옛골토성 에 모여 오찬을 즐겼다.

이어 보건대학원 석사와 박사 1회 출신인 鄭文植(화학55-59)명예교수, 박사동우회 鄭文植(보대원66-68)회장 등이 경품을 추첨했으며, 자리를 함께한 교수, 재학생들도 노래실력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GLP동창회

辛東烈회장 재추대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朴泰鎭국제대학원장·李震勳교수, 한국무역협회 무역이카데미 李恩壽본부장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辛東烈(37)회장, 金一煥(27)감사 등이 유임됐으며, 한국회의발전연구소 허 소장이 '회의진행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동창회는 오는 6월 골프대회, 8월 장학금 수여식, 10월 동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연말에 회원수합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南)

음악대학동창회

金賢坤등문 골프 우수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4월 12일 인천그랜드CC에서 올해 첫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 許 熙사무총

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72.8타를 기록한 金賢坤(기약71-78)등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결과(신데리오 방식 적용)는 다음과 같다.

▲우승 金賢坤등문 72.8타(그로스86타) ▲메달리스트 이종길(국약85-90)등문 83타 ▲준우

승 金正秀(기약61-65)등문 74.6타(그로스83타) ▲3위 金日輪(국약79-83)등문 76.6타(그로스91타) ▲봉계스트 金泳律(기약76-80)등문 2백m ▲니어리스트 全商直(직곡82-86)등문 2m

다음 대회는 6월 7일 인천그랜드CC에서 열릴 예정이다.

생활과학대학동창회

鄭興淑회장 재선임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興淑)는 지난 4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鄭興淑



(가정교육59-63)회장(사친)을 재선출했다. 鄭興淑장은 지난 2년간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으로 3억6천여 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이어 장학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3명에게 1백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전달했다.

총회 후 동문들은 성악가 임준식(바리톤)씨의 노래를 음미하며 봄꽃이 만발한 교정에서의 짧은 하루를 마감했다.

간호대학동창회 李倫京회장 (충무병원 부원장)

지난 3월 21일 간호대학동창회 신입 회장에 충무병원 李倫京(간호65-69) 부원장이 취임했다. 모교 간호교육 1백주년을 맞은 올해는 동창회의 할 일이 어느 해보다 많다. 여러 기념 사업을 펼쳐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회회장장을 만나 1백주년 기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중요한 해에 회장을 맡으셨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아쉽 도리가 없었어요. 모교 간호교육 1백주년인 올해 회장을 맡아 어찌가 무감자만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올해 역점 사업이 어떤,

“10월 16~19일에 열릴 1백주년 기념 사업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념 박물관 개관, 간호교육 역사서 출

판, 동문회원명부 발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창회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지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현재 10여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츰활동에서 모금위원장을 맡아 3월 현재 약 2여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문부터 각지에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내신 분들도 7명이나 됩니다. 8월까지 도급할 계획인데, 모교가 원대한 비전을 품고

“간호교육 1백주년 사업에 올인”

나아갈 수 있도록 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연하신 금액은 연말에 소독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사 준비하는데 애로점은,

“간호교육 역사박물관이 10월 개관을 앞



두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 물품을 전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옛 간호대학 통제실과 그 옆 공간을 터서 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문들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참

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 친목 모임은 갖고 있는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등산모임이 있고, 5월에 걸쳐 캠프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회원 수는 20~30명 정도입니다. 간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창회원이 3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동문들은 아주 적어요. 동창회는 모교와 동문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멀리서 쳐다보지만 말고 가까이 들어와서 소속감을 느끼고 동창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으면 합니다.”

신임 李회장은 충무병원 부원장을 맡아 행정업무에 총괄하고 있다. 남편 李韓榮(의학63-68)원장은 동문으로 의대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영등포동에 위치한 충무병원은 81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해 관·학·전 전문병원으로 유명하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HPM동창회 姜善英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회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열정을 이끌어내 더욱 독특한 유대와 상호 신뢰가 넘치는 동창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동창회 제5대 회장에 추대된 姜善英(HPM 1기 안동병원 이사장)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 경북 안동에 거주하고 계셔서 동창회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안동과 서울의 거리는 불과 2백50km입니다. 멀리만 멀 지요, 가깝다면 하루에도 두 번 왕복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창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거리는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관심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겠지요.”

— HPM동창회를 소개해주시던.



참여와 소속감을 증진시켜왔습니다.”

— 인동병원원의 지장은,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로 병원의 하루를 엮는다. 1992년부터 시작한 전철서비스운동은 고객만족 향상을 물론 전공 의에게 서비스 혁신을 선도, 전국 의 의료기관·관광사·기업체 등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으며 요즘도 매월 1백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 환자중심의 맞춤형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간병원과 365일 휴일 없는 병원을 개설했고, 책임간호를 위한 간호실명제와 전문간호사제, 해파리 프로그램, 불만고객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NMP동창회 嚴玉鳳회장 (상계백병원 간호부장)

“2003년 1기 20명을 시작으로 2005년 2기 20명, 2006년 3기 24명이 수료해 총 회원이 64명에 이르렀고, 지난 3월부터 4기 24명이 6개월 교육과정 이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창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친목도모를 하면서 동창회 발전의 단군이 되는 재정지원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친목단체를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오랫동안 대한간호협회 수술간호사회(KAORN) 임원직을 수행했으며, 현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진우장이온스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친목단체나 마찬가지이지만 회장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성원의 자제로 열정·사랑·열린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탐방·문화답사로 소속감 증진”

“HPM동창회는 1998년에 결성됐으며,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교인 사 7명47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동창회와 달리 부설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보건정책정보연구원(한보연)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연구와 의료봉사활동 등 법인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먼저 ‘한보연’의 활성화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정책포럼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올버는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골프와 등산 등의 문화적 활동은 물론 탐방·문화답사 등의 체험활동, 회원사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초청간담회 등을 열어왔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글로벌스탠더드 실현을 위해 세계 최고의 전철서비스를 실현하는 일본 MK텍사와 서비스정신을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ISO 9001(한국품질재단, IQNET)을 획득해 지속적인 진로프로세스 혁신과 서비스 품질 증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천2백명상 규모의 초현대식 새병원 완공으로 전제 2천명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변모하게 되며 최첨단 암 치료장비를 구비한 암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姜회장은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최고경영자과정(AMP 48기)·최고산업경영자과정(AIP 33기)을 수료했다. 현재 국립의료원 운영위원, TBC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64명 뚝뚝 뭉쳐 재정 확충에 전력”

“저는 2003년 ANMP 1기를 수료한 후 총무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중 올해 동창회 창립총회에서 동기와 임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현재 상계백병원 간호부장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ANMP과정에 개설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간호대 차츰활동에 교수진, 차츰활동수반, 그와 여러 산생원들의 열정에 힘입어 동문 회합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ANMP는 어떤 과정인지,

“국내는 물론 해외 연수를 통해 실무능력과 관리능력을 함양하여 병원, 보건소, 간호대학, 가정간호사업소, 재활병원, 요양원 등의 다양한 곳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계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 동창회 구성원은,

그 모임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전회원의 마음을 모아 응징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장 또는 ANMP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창회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저희도 미약하나마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ANMP 동문 여러분께서 그동안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모든 행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마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내내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성심 성의로 교양활동을 다하겠습니다. (葉)

뮤지컬 '지하철 1호선' 3천회 돌파...獨정부로부터 괴테메달 수상

동문을 찾아서

극단 학전 金敏基 대표

金敏基(호화69-78)동문은 많은 이들에게 '살아서 신화가 되다시피 한 인물'로 불린다. 19세 때 작곡한 '아침이슬'을 비롯, '상록수', '천구' 등 수많은 노래들은 국민가요가 됐고, 그가 대본 연출 제작을 맡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원작자(폴 커 루드비히)로부터 독일극보다 낫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 뮤지컬 사상 최장수 공연을 기록하고 있다.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축소려워 하는 성격으로 인터뷰를 극구 미루던 金동문을 평소 자주 들르던 서울 대학로 '張' 레스토랑에서 만나 지나온 삶과 창작 계획에 대한 솔직하고도 담백한 얘기를 들었다.



대답 : 본보 朴聖姬는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지하철 1호선’은 6개월마다 팀이 바뀌어요. 그 팀일을 연습시키는 게 가장 주된 일이지요. 사무적인 일도 많아요. 새 대본도 준비해야 하고.”

— 지난 3월 독일에서 괴테메달을 받고 오셨지요. 상당히 영예스러운 상이지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금은 없고 메달만 받았어요. 보여드릴까요. 영전처럼 생겼는데... (웃음). 괴테 메달 말고 괴테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상금이 있다고 해요. 메달은 독일 정부, 괴테상은 프랑크푸르트시가 주는 건데 프랑크푸르트시가 돈이 더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도 상 받으니 좋고, 우리 부부 양복 비행기표 (비즈니스석)를 보내주고 좋은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서 잘 지내고 왔어요.”

—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괴테메달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요.

“70년대에 국립극장장을 지낸 徐恒錫씨가 받으셨고 뒤에 尹伊桑, 白南俊씨도 수상하셨어요.”

— ‘지하철 1호선’(이하 지하철)은 지금까지 총 몇 회나 공연했나요. 매출한 배우도 많겠지요.

“3천3백60여 회 될 거예요. 거처간 사람은 2백명이 훨씬 넘고요. 설경구, 방은진, 조승우, 황정민씨 등도 ‘지하철’ 출신이죠. 영호씨 말고 뮤지컬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요즘엔 공연 대부분이 뮤지컬이죠. 대학로에서만 뮤지컬 몇 십 편이 올라가니까요. 주연급은 거의 다 ‘지하철’ 출신이에요.”

— ‘지하철’ 출신 배우들과는 모임이 있나요.

“다들 바빠서 만나기 힘들어요. 요즘엔 초등학교 아이들도 편찮아 싶으면 메나지먼트 회사에서 관리해요. 일단 계약하면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래도 지난 주말 괴테메달 수상 기념 파티엔 많이 왔어요.”

— 6개월마다 새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신인은 어떻게 뽑나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지요.

“3차에 걸쳐 오디션을 봐요. 11명 뽑는데 3백명 정도 옵니다. 30대1의 경쟁률이죠. 1차는 노래실력, 2차는 연기와 몸 움직임, 3차 때는 앙상블을 봅니다. 2차까지는 실력을 보고 3차는 조화가 맞는 팀원을 뽑는 거죠. 지원자 중에는 7, 8수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두 번 뽑으니 3~4년씩 매달리는 셈이죠. 연극영화과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성악과 출신이네요. 음대 나와도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젊은 성

인 재산은 없어요. 소득이라야 학전에서 받는 월급이 거의 전부고요.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월급 받아요. 액수는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웃음)”

— 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저작권료도 있을 텐데요.

“결혼할 때 수입이 한 톨도 없었어요. 그런 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벌어들인다고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요. 저작권료는 많지 않아요. 그나마 처음엔 학전 수입으로 다 냈었다가 지금은 30%만 학전으로 넣고 나머지는 판공비로 써요. 그래도 CF 찍으란 말은 안 하니까. (웃음)”

— 지금까지 작곡하신 게 전부 몇 곡이나 되나요.

“93년에 CD 녹 장작리 전집을 냈어요. 대략 40곡 정도, 97년 자작권 협회에 가입했는데 얼마 전 정리하는 거 보니까 뮤지컬 곡까지 합쳐 1백 곡 이상 되더군요.”

— 지금 공연장으로 쓰는 화전이 두 군데죠. 구입한 건가요.

“극단을 하면서 어떻게 건물을 사졌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작중인데요. 임대해서 쓰는 거죠. 91년에 학전 탐부, 96년에 그틴을 오픈했어요. 영화는 한 번 찍으면 조조에서 십이까지 여러 극장에서 계속 상영할 수 있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은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하는데 매일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야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 학전의 식구는 모두 얼마나 되나요.

“월급을 주는 사람은 10명이고요. 6개월 단위로 출연하는 계약직이 50명 정도 됩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60명 되는 셈이죠.”

—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에 자주 가신단편에 요즘도 그런가요.

“재작년까지는 자주 갔죠. 예술인 창작

실이 있거든요. 일종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인데,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창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죠. 돈 낼 필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정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못 갔는데 올 여름엔 또 들러갈 계획입니다.”

— 토지문화관이러면 차츰원생생원 개인 재산이 아닌가요.

“토지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문광부가 작가에게 숙식비를 대주는 것이죠. 예술인 입장에선 아주 필요하고 긴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올 여름엔 그곳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아동극을 몇 편 준비해야 해요. 내년엔 유럽 아동극 몇 편을 국내에 소개하려고요. 우리나라도 근대 아동문화 쪽에 외유를 보아진 하지만 완전한 작업 내지 모델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예와와 왕파문제를 다뤄볼 예정이죠. ‘개똥이’도 다시 손질해야 할 데요.”

— 왕파문제를 소재로 하는 건 중요한 작업이지만 일반인에게 어필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의 경우 아동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쏠려있지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소개하려는 건 아주 초보적인 리얼리즘 계열입니다.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죠. 지금은 아동극이란 게 막대한 판타지 물량에요.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고 소개하면 국내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업의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친구들은 3, 4년 전에 없고, 매년 새 작품을 시리즈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 뮤지컬은 음악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탄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뮤지컬은 구체적인 대본 없이 감각적인 상황을 설정해 열거시킬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까.

“서사 없이 감각적인 것들을 짜집기해 만든 뮤지컬이 대체로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은 관객들이 그런 작품을 보지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때가 되면 서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영화도 하얀 한 구성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거품 빠지고 있었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 그래도 지금처럼 뮤지컬 시장이 좋을 때 기조가 쌓여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은 젊은 관객이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거품이 빠지겠지요. 스토리, 문학적, 예술성이 요구가 되겠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뮤지컬 말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나요.

“너 나이 들면 그림을 그리고

장애아·왕파문제 소재로

리얼리즘극 준비중

“환갑되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갈 생각”

악도들은 뮤지컬 쪽으로 많이 와요.”

— 좋은 사람이 많이 오면 개공연 뛰어난 사람도 있을 텐데. 문제는 대우겠지요.

“지하철’ 공연을 시작할 때도 해도 뮤지컬이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대형 상업 뮤지컬이 많은데 그쪽에선 엄청난 개런티를 줘요. 영화에 투자하면 사람들이 뮤지컬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개개수공업식 규모여서 출연료를 많이 줄 수 없죠. 좋은 배우들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뮤지컬배우가 되려면 ‘지하철’ 공연을 6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 ‘지하철’은 상당한 성공작인데 재산은 좀 모으셨지요.

“일산 호수마을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처음 분양받은 거라 다



☑ 싶어요. 전공이잖아요. 주변에 입버릇처럼 말해요. '지금 난 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되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간다'고. 젊어서 이상하게 잘 그림을 흘려가서 너무 오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 미대에 진학할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죠. 집안에 미술을 공부한 분이 계셨나요.

"어려서부터 그림밖에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미술관에 들어가 6년 내내 '미술반 귀신'처럼 살았죠. 넷째 누나가 이화여대 미대를 나왔고, 셋째 누나가 申壽峯(기약59-63), 申壽卿(회화63쪽)씨와 서울에 고 동거였어요. 申壽이 누나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제 그림을 보고 지도도 해주고 그렸죠."

- 그런데 왜 대학에선 음악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나요.

"음악을 나온 셋째 누나가 고통받고 입학선물로 기타를 사주더라고요. 취미가 늘어난 거죠. 대학 입학 당시 풍기타가 유행했는데 기타를 잘 한다고 소문나 여기저기 반주 부탁이 들어왔어요. 양화은씨 반주를 해주고 노래까지 만들게 됐죠. 노래가 유명해져서 허명을 타게 됐죠."

- 그게 '아침이슬'이죠. 아무튼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투사 이미지도 강한데 처음부터 세상에 저항할 의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시대 상황이 만든 건가요.

"전혀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저 당시 학생운동이 태동되면서 여럿이 함께 부를 노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토론이나 데모 현장에서 사람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내용이 안 들어간 노래를 찾다 보니 제 노래를 부르게 됐던 듯해요."

- 한때 저도 '금관의 예수'를 즐겨 불렀어요. 어떻게 작곡하셨는지요.

"73년인가, 미대 옆 문리대에 친구가 많았어요. 金芝河(미화59-66)씨는 산배였고 그 아래로 부음하는 李愛珠(체육교육65-69), 탐춤 蔡熙完(철학70-74), 연극 林顯澤(외교69-75), 金錫滿(지리70입), 李相宇(미학70-77), 국악 金永東(국악71-75), 작곡 李鍾九(작곡67-75) 등 각 방면의 친구들 그룹이 생겼어요. 소위 '문화운동 1세대'였죠. 그러다 金芝河선배와 함께 가톨릭 문화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일환으로 金선배가 '금관의 예수'라는 화곡을 썼죠. 첫 공연에 가는 도중에 화곡에 나오는 시를 노래로 만들어볼 수 없겠냐고 해서 작곡하게 됐죠."

- 미대 다닐 때 화집은 어땠어요.

"1학년 때 나제했어요. 커리큘럼도 싫었고, 실은 제 앞이 金愛珠(회화69-76)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대신 출석부른데 답하고 시험도 대신 쳐주다 제 걸 행거지 못했어. 수업도 재미없고, 서울대가 아방가르드한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갑갑하고 방황도 많이 했죠."

- 서양화와 통기는 어떤 분들인가요. 가끔 만나시는지. 대학시절 추억이려나.

"張和義(회화69-73), 金愛珠, 朴實旭(회화69-74), 朴英男(회화69-73) 등. 연립에 朴英男선생님과 만나는 술자리에서 끝나. 연건동 시절은 관찮았는데 조금 있다 이런 저런 일에 휘둘러 힘들었어요. 겹치려면 학교로 잡으러 오고 그랬으니까. 긴 장외고 피곤했던 기억이 많죠. 그래도 공룡동 공대에 가서 공부하던 시절 張和義랑 넷째 친구들과 조형학과에 만들고 전시회도 열고 그랬어요. 그런 참 아니었어는데."

-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운동권이어서



연제받진 않았는지요. 어디서 복무했는지.

"74년에 갔어요. 병적기록부에 ASP라고 써 있었죠. Anti student Power. (웃음) 처음 2개월 동안 키투사에 배속받아서 AFKN에서 근무를 했는데 곧 강원도 원봉으로 쫓겨갔죠."

- 처음엔 어떻게 키투사로 갔는지요.

"군대를 늦게 갔더니 훈련소에서 나를 알만한 군대 고참들이 좋은 데로 빼준 거죠. 그런데 명동성당에서 3선 개헌 반대 행사가 있었는데 제 노래들을 부르기로 돼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안사에서 나와 서빙고로 데려가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웃음)."

- 한동안 농사를 지으셨죠. 자료마다 다룬데 농사짓고 서울로 돌아온 시기와 장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약 5년 지었어요. 1979년 1월 전북 익산군 팔봉에서 새집 받고 남의 집 일을 했죠. 이듬해 간재에서 소작농을 했고요. 81년 전국에서 숙부와 함께 있다 혼자 민통선 마을에 들어가 2년동안 혼자 지냈죠. 백학 못 미친 곳이었는데 83년 말 집에 불이 나 84년에 서울로 돌아온 거죠."

- 불이 왜 났어요. 민통선 마을에 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수입 수원을 확보하셨단데.

"혼자 살다보니 이웃들이 와서 불을 때웠는데 과열됐던 모양이에요. 화재만 아니었으면 계속 농사 지었을 거예요. 남쪽과 달리 북쪽에선 겨울에 할 일이 없었어요. 전

가 하신단 간장공장과 사이다공장도 운영하셨어요. 66년쯤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죠."

- 85년에 결혼하셨죠. 자녀는 몇인가요.

"아들 둘입니다. 큰 아들(종화, 21)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에 다니는데 현재 건축부 중이고 작은 아들(소유, 19)은 올해 국민대 디자인계열에 들어갔죠. 원주 장일순 선생님께서 큰애 이름을 소유라고 잡아주셨는데 큰애는 돌림자를 써야 할 것 같아 다시 짓고 작은애를 소유라고 지었어요."

- 얼마 전 趙英男동문이 중앙일보의 '내 마음의 봄'에서 金東潤을 마음 속 별로 지목했는데요. 趙東潤과는 언제 처음 만났나요. 趙東潤의 첫 전시회를 열었다고도 하던데. 趙東潤의 그림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70년인가 71년쯤 만났어요. 그림은 다 자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누가 잘 그렸나 못 그렸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식으로 하면 잘하는 거죠."

- 경기 65회 동창들과는 자주 만나세요. 가까운 분은.

"생활주기가 다르니까 통 만나지 못해요. 요새 잘 가는 친구로는 미대 같이 다녔던 이노디자인 金鍾世(응용미술70-74)대표 정도."

- 재너들에게 삶의 방식이랄까 철학에 대해 호의한데.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지도 당시 경기고에서

당시엔 학생들이 부를 노래 별로 없어 '아침이슬' 민주화운동의 주제가처럼

곡에 있을 땐 탄광에 들어갔죠. 한 겨울 광부 노동해서 번 돈으로 민통선에 혼자 한 게 샀던 건데 불만 거죠. 민통선에서도 겨울에 할 일이 없어 동네청년들과 쌀을 직접 내다 팔았던 거예요. 산지기와 소비자가격에 차이가 컸더라고요. 돈이 모이면 동네 목욕탕을 짓기로 했는데 못했어. 아쉽지요."

- 형제가 몇 분인가요. 익산에서 태어났고 재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돼있는데.

"5남 5녀. 누나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9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재동초등학교로 올라갔죠. 형제들이 먼저 서울로 유학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 계시고요. 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 어머니의 교육열이 대단하셨나 봐요.

"신파를 하셨어요. 세브란스 1기생으로 입학하셨는데 졸업장을 안 두고 퇴학당하셨대요. 학교 기숙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데 항의해 데모하셨대요. 원심이 고항인데 할 수 없이 일본에 건너가 공부하고 남해안에 정착해 산골 집으로 건너 결혼 후 신파를 하신 거죠. 어머니(김대현)가 도와 태어난 아가만 해도 수 천명은 될 걸요. 그러면서 아버지

미대에 진학한다고 하면 '도라지'라고 그랬으니까요."

- 외부 강연이나 강의를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데. 왜 안 하시는지. 요청이 많을텐데요.

"절대 안 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못해요. 전연 터러 요청이 왔었는데, 안 한다는 게 소문나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남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전공과 연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장'에서 '이 작품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처럼 어리석은 게 많았어요. 제가 그린 그림, 만든 노래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평론가라면 할 말이 많겠죠. 제가 해온 작업 때문인지 못했어요."

- 모교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난강하네. 학교 기억은 까마득한데... 공통동 시절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렸죠. 서울대가 좀더 창의적이었으면 좋았어요. 권위와 실력이 최고라는 건 다들 인정하지만 이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서울대가 조선시대 성균관은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이었으면 좋았어요. 기존의 중앙감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지만요."

- 바쁜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본보 李五峰는설필원·정리 金南桂/지)

알아 전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실버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세계에서 정무후한 일이기 때문. 8명의 대원 평균 연령이 66세, 최고령자는 75세에 이른다. 등정에 성공하면 세계 산악사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에베레스트 실버원정대를 기획하고 추진한 주인공이 한국산악회 崔弘健(형정62-66)회장이다. 이번 원정대의 단장을 겸하고 있다. 崔동문은 아들과 함께 오르지는 못하고 지난 4월 22일 하만라포를 떠나 네이스캠프에서 상환을 파악하고 있다.

떠나기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실에서 만난 崔동문은 “실버세대에게는 희망을, 젊은이들에게는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실버원정대 창단 동기를 설명했다.

화제의 동문

한국산악회 崔弘健회장

“올해가 故 高相敦대원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등산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한 산악인 11명 중 3명을 배출한 산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산악활동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실버원정대를 만들게 됐죠. 해방전후세대인 60대는 지금의 한국을 만든 주역들인데,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 조금은 의기소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해 실버세대에게 용기를, 젊은이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중학교 때 부친 따라 등산 시작

崔동문이 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동네에서 가까운 인왕산, 북한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산

과 친해졌다. 이후 경복중 산악부에 들어가 본격적인 산악활동을 시작했으며 대학 시절에도 문리대(61년 언어학과 입학 후 다음해 법대로 재입학)·법대 산악회원으로 산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맡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으로 부임하며 다시 등산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방학을 이용해 일본 북알프스(3천1백90m), 안나푸르나 트레킹, 몽블랑(4천8백7m), 킬리만자로(5천8백95m), 엘브루스산(5천6백33m)을 등정하기도 했다.

요즘도 주말을 이용해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을 오른다. 여유가 있을 때는 지방의 명산도 수시로 찾아가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우문일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오르는 걸까?

“글쎄요. 저는 산 자체가 아름답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산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도 아름다워요. 힘들고 습하지만 아름다움을 찾아가는데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崔동문은 산행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해서 성공성공을 올라갔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오를 수 없지요. 또 정상에 가까워수록 몸을 숙여야 합니다. 땀땀하면 뒤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등산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전한 하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崔동문이 수장을 맡고 있는 한국산악회

“실버세대에 희망을, 젊은이엔 도전정신을” 첫 출정 ‘한국 에베레스트 실버원정대’ 단장 맡아



는 해방과 동시에 창설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통 산악인 단체이다.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등산학교 운영을 통해 전문 산악인을 양성하고 청소년 캠프 등을 열어 자연보호와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산악회, 동문들과 인연 깊어

한국산악회는 丁明植(도목공학50-55)·文熙展(전기공학57졸)·南正鉉(건축57-61 본회 부회장)등문 등이 회장을 역임하는 등 모교 동문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작년 봄이 매킨리 등정 도중 숨진 申慶燾(가상72-80)前기상청장도 기획이사를 맡아 봉사했다. 실버원정대 계획도 申동문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崔동문은

“慶燾후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이번 실버원정대의 부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밖에 실버원정대에 도전해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嚴 旌(건축59-63)등문도 산악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원정대의 지원대원으로 선발된 金閔鍾(약학64-71)등문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崔동문은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으로 8년째 연임돼 산악협력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시켰다. 교수 1인당 연구비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2위 수준이다.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을 만나는데 그 고비를 넘 기면 평온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공지에 있을 때도, 총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산이 가르쳐준 진리를 되새기며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에베레스트는 언제쯤 도전할 계획이나 그 묻는 질문에 “글쎄요. 정상까지는 못 가겠지만 언젠가 도전은 해봐야겠죠. 산악인들의 최종 꿈인데...”라며 웃는다.

“실버원정대원들과 함께 지난 2월 한라산에서 훈련을 하다 눈사태로 20여 명이 1백50m를 굴러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대원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원들은 모두 다시 태어난 날과 시간이 같은 중갑내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에베레스트 등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들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南)

콩트 릴레이

벽창호(碧昌牛)

吳世鈞

(의화59-65)

소아과 전문의·수필가



인물이 그중 뛰어난 위에 성품 또한 서글 서글해 살아생전 선전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던 둘째 여동생은 제 적성에 맞게 공대 출신의 경성도 총각한테 시집을 갔다. 결혼 첫째부터 딸을 건어붙이고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 역적을 떨치며 나이 50에 벌써 성공한 실업가소리를 듣게 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업을 벌려왔던 탓에 외동딸을 시집보낸 그 해에 불어닥친 IMF풍파에 어이없게 부도를 내고는 그 길로 부부가 함께 중국으로 훌쩍 떠나고 말았다. 서글 어딘가에 남아 살고 있을 조카딸이 금급하긴 했어도 나 또한 일을 접고 그 사이 두 번이나 이사를 하는 통에 그 후로 소식을 끊긴 채 훌쩍 7년이 지났다.

지팡을 다려낼 일이 생겨 집을 나서는 참에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뜻밖에도 둘째. 음성이 밝다. 국내에 처리할 일이 생겨 어머니도 별 겹 여저 귀국했다. 잡하면 내일쯤 집을 낼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가볍게 들려 있다. 타고 올 버스와 내일 정류장 이름을 일러준 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이 늦어 어두워서야 돌아오게 됐다.

밤 9시가 넘는 시각, 비보호 신호등이 설치돼있는 아파트 앞 큰길에서 대충 좌우

를 살핀 다음 좌회전해 입구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나, 입구를 막 지나려는 차에 횡단선의 반대편 출구차선에 가 도로 서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내 차를 향해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닌가! 왼쪽 어깨 너머로 그 차의 후미 등이 보인 건 순간적이었다. 깜짝 놀라 차를 세우며 경적을 울려보았지만 막무가내, 그대로 달려들어 내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놀라 내려보니 운전석 문의 앞쪽이 불 켜사람게 찢고져져 들어갔다. 고약하고 황당해 정신이 다 멎었다.

차 문을 열고 나온 상대방 운전자가 내 옆으로 더덜덜 다가오더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느냐 공손하게 묻는다. 요즘 젊은이와



일러스테이션 韓國 (서울02-06) 동문

는 달리 인성이 밝다 싶어 “물어주어 고맙다”며 다친 데는 없다고 경직 끝에 답해줬다. 금세 젊은이의 허리가 끈게 파진다.

“다행이네, 괜히 떨었잖아.” 중얼거리듯 혼자소리를 내들리며 선뜻 몸을 돌려 건너편 보도로 훌쩍 가버리고 만다. 담배를 꺼내 피워 물고 여우 있게 연기를 내뿜는다. 거기 쪽만 바라보며 내겐 눈도 주지 않는다. 잘못했다든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과심했다. 따라가 그 앞에 다가서서 물었다. 어째서 그곳에서 유린할 생각을 했느냐. 거기까지 어디 유턴하는 자라나. 경적소리가 못 들었느냐고 재우쳐 다그쳐도 묵묵부답, 종내에는 다친 데가 없으면 그만이지 그자 차 좀 찢고진 것 가지고 점잖은 어른이 될 그리 역정을 내느냐고 오히려 불을 붙인다.

꽤 장문을 반쯤 내리고 사태를 관망하던 젊은이 차에서 내려 또박또박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자족지는 내게로 걸어왔다. 젊은이의 누이라고 신분을 밝힌다. 1백프로 잘못을 시인한다고 대신 사과를 하면서 바로 사고접수를 하겠다. 자기 쪽에만 일러도 충분할거라고 한다. 그러는 와중에도 젊은이는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은 채 계속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남의 집 부

경하듯 무표정하게 서서 수수방관한다.

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터에 젊은 사람과 다투는 것도 짜증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읽은 아녀이 차분하게 나를 달랜다.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조금도 염려 마시라며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준다. 어정쩡 쪽지를 받아든 채 집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뒤는 여전히 점잖었다. 조금 지나 핸드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K자동차보험의 사고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올라 있었다. 전화를 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전에 자세한 경위를 들겠노라며 긴 통화를 꺼린다.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쌍방과실이 확실할거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다. 여운이 묘했다. 시비가 분명한 일을 쌍방운운 하더니!

다시 걸었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 담당자의 말하는 풍이 영 경우에 어긋난다. 끝까지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 티격태격 연성을 높인 끝에 사고현장에서 만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 시간 뒤 아파트 입구에 나타난 젊은 K보험 담당자는 자차지종을 다 듣기도 전에 대를 입구로 진입하던 나에게도 주의운전 소息的 책임이 있다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잘못이 없다고 판단됐으면 왜 사고소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으름장이다.

납득이 안됐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내가 가로지르려는 차선에 차가 없고 진입해 들어갈 진행차선에 사람과 차가 없는 것만 확

“아니 예비될되는 사람한테...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

“그건 알아 뭇하시려고, 나이가 많으면 답니까? 봉건적이거나 보수적이기 밖에 더 답니까.”

전혀 누그러지는 기색이 없다. 지난번 선거 후 두 뚜렷한 사회현상이나 새삼스레 뉴스 같음을 운위한들 나만 다들 물어 말 아예가 될 것 같아 그만두고 싶었지만 참가가 쉽지 않다.

“자네는 예비도 없나?”

“아버지요? 아버지지는 왜요? 흠.”

몇 모를 궂웃음을 치고 나서 담당자는 내 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타고 온 차를 물고 할 하니 내뺌시키고 만다. 젊은 아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내가 잘못인성 싶었다. 부랴부랴 D보험에 연락을 했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나는 나의 D보험 담당자와 사고현장에서 K보험 담당자를 다시 만나 상황을 설명하며 시시비비를 가렸다.

“여기를 보소. 여기가 아파트 입구에 어디 차를 들리라는 표시가 있소? 그리고 어디 여기가 차를 들릴 만큼 넓기를 합니까.”

하지만 담당자는 표정이 없다.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어르신께 법규정을 모르셔서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K보험 담당자의 얼굴은 확실히 차웠다. D보험 담당자는 현장을 살펴며 듣기만 했다.

“젊은이가 정말 벽창호네. 여-보 이런 일이 어디 있소. 당신은 예비도 없소? 어제도 몰았더니 대담도 없이 가버릴 줄 보니까 없진 않나보네,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나?”

K보험 담당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진다.

“나이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저절로 먹은 나이가 뭐 그리 자랑이십니까. 아버지는 왜 자꾸 들먹이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참가가 힘들었다. 먹살잡이라도 할 참으로 젊은이에게 다가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가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배웠을 테고 정의가 뭔지도 알겠지 아니까, 내게 그러하면 정의요 법이고, 내게 불리하면 안 지켜도 되는 약법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다 싶으면 아예에 붉은 띠를 매는 게 요즘 세상이리곤 하지만 명명백백한 사실을 왜 국하고도 당신이 옳다고? 예비 없는 후배 자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따위로 억지를 부릴 수 있나!”

그때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내린 누이가 나를 부르며 허겁지겁 길을 건너온다.

“아빠나 오빠, 여기서 이게 웬일이요?”

놀란 얼굴로 다가오다가 먹살 잡힌 담당자를 보더니 화들짝 더 놀란다.

“아니 자네가 여진 뎀. 일-인-가!”

고개를 돌려 여동생을 바라본 젊은 K보험 담당자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 손에 힘을 풀면서 동생에게 물었다.

“누구나, 아는 젊은이냐?”

“참 오빠두, 이 사람이 자영이 신랑이야. 하긴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7년이나 지났으니 모를 만도 하겠네, 그런데 이를 또 서로 기억 못했? 참 너무무 했다. 어젯 밤 늦게 들어와서 사고처리해 만난 할아버지 벽창호라더나 바로...”

66

내게 유리하면

정의요 법이고,

내게 불리하면

안 지켜도 되는 약법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다 싶으면

아마에 붉은 띠를 매는 게

요즘 세상이라곤 하지만

명명백백한 사실을

왜 국하고도

당신이 옳다고?

99

서울대 가족

간삼파트너스 元正洙상임고문

형·부인·매형·처남내외 등 15명이 동문

“일에 대한 열정·모교사랑이 삶의 원동력”

지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전국의 21개 교향악단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인 '교향악 축제'가 열렸다. 두 번째 날인 4월 2일에는 서울시향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봄을 깨우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팔순이 다된 백발의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려놓고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실버세대'들은老子 회자에게 이질없는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음악관계자들로 둘러 쌓여 있을 줄 알았던老子회자 주변에는 국내 건축계를 이끌어온 동인들로 북적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포스코센터, 한국은행 본점 등을 설계하며 50년간 국내 건축계를 이끌어온 간삼파트너스 元正洙(건축53-57) 인하대 명예교수)상임고문의 형이 다른 아님 이남 객원지휘를 맡은 元京洙(작곡49졸 前서울시향 상임지휘자·재미)동문이었기 때문, 여기에 간삼파트너스 상임고문으로 있는 元正洙동문의 부인 池 淳(건축54-58) 동문과 모교 건축학과 선배들로 구성된 木口會 회원들이 가세해 화기애애한 저녁 뒤풀이가 되었다고.

“음악과 건축의 세계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형님으로부터 음악의 깊이를 알게 됐고, 저는 그것을 건축에 접목해 더 큰 상승효과를 얻게 됐죠.”

형님이 서울시향 상임지휘자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화장실이 형편없어서 여자 단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은 '그래서 화음이 좋지 않은가' 하며 저에게 연주회 포스터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포스터 광고비로 화장실을 수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수리하더라고요.

또 한번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단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이 없어



元正洙동문이 설계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형 元京洙동문(左)과 함께. 원내 좌로부터 金應振·池 淳·池積慶동문

서 음악에 집중을 못하는 건가' 하며 저에게 건축가들을 초청한 작은 연주회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장소 섭외에서부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지금도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형님의 지극정성(?)은 계속되고 있지요.”

대식구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로 토닥이며 마음 풍족한 어린 시절들을 보낸 元正洙동문 가족 중에는 모교를 졸업한 동문이 작고한 사람을 포함해 20명에 이른다.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매형 金應振(경성의전36-39 모교 명예교수)동문은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이자 만능스포츠맨이다. 그밖에 조카 元成顯(응용물리65-69 재미·금속공학박사)동문과

조카사위 李泰安(의학61-67 재미의사)동문, 처조카 申聖植(공업교육70-74 삼성전자 LCD연구소 전무)동문과 처조카딸 池泳媛(사법86-90 대법원 재판연구관)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또 부인 가족 중에는 동서 申午雨(상학44-47 재미)동문을 비롯해 처남 池積慶(지질과학55-59 인하대 명예교수)동문과 처남댁 尹敬信(영어교육58-62)동문이 있으며, 매형 金應振동문의 아들인 金永健(의학62-68 충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金永斌(경영65-72 前법안상선 감사)동문과 종손 金鉉書(재료공학95-01 동원증권 대리)·金勳書(지구환경시스템공학01입)동문이 서울대 가족을 이루고 있다.

한편 '元正洙' 하면 그 옆에 나란히 기대어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이름이 있다. 다른 아님 부인 '池 淳'동문이다. 이들 부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부부 건축가로서 한결같이 수많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합작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국내 1호 여성건축사인 池 淳동문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양지회 회관을 설계했으며, 한국여성건축가협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대학시절 건축전시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친하게 됐고, 방과후에는 기성건축가들이 활동하는 연구소에서 견습생으로 매일밤 일하면서 공식커플이 됐죠. 이후 함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교수로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견습생과 사무실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랜 그렇게 일을 해도 어찌나 재미있고 활력소가 되던지...”

거의 매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부딪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元正洙동문 부부의 남다른 '합력공합'이 빛을

元正洙(건축53-57)동문 가족

매형

金應振(경성의전36-39)

동서

申午雨(상학44-47)

형

元京洙(작곡49졸)

부인

池 淳(건축54-58)

처남

池積慶(지질과학55-59)

처남댁

尹敬信(영어교육58-62)

조카

金永健(의학62-68)

金永斌(경영65-72)

元成顯(응용물리65-69)

조카사위

李泰安(의학61-67)

처조카

申聖植(공업교육70-74)

처조카딸

池泳媛(사법86-90)

종손

金鉉書(재료공학95-01)

金勳書(지구환경시스템01입)

발한다.

“의견 차이도 있고 부딪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그림을 그리면 아내는 뛰어난 수리력으로 단면도를 그리는 등 이렇게 손발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형제간·사촌간 허물없이 지내며 그저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다 보니 어느새 자녀들과 조카들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끝으로 元正洙동문의 당부의 한마디.

“元씨 집안과 池씨 집안이 큰 탈없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러운 모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교가 없었다면 저는 훌륭한 아내, 형제 그리고 네 명의 딸과 선수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젊음을 불태웠던 옛 켄배스를 둘러보며 삶의 활력소를 느껴보심이 어떨런지요.”

(表)

모교·KAIST 공동연구단지 조성

인천 청라지구에 2008년부터 추진

모교 소식

모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국제과학복합연구단지 'BIT Port'를 조성한다.

모교 李長茂총장과 KAIST 徐南杓총장은 지난 4월 11일 'BIT Port'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민간자본 등으로 마련한 1조7천억원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약 20만평 부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BIT Port'는 차세대 성장 동력

으로서의 바이오 기술(BT)과 정보통신 기술(IT)이 융합된 복합 연구단지다. 'BIT Port'는 BIT, 바이오 기술(BT), 정보통신 기술(IT), 산업화 및 교육(EB), 지원시설(CF)로 총 5개 연구단지로 구성된다. 각 연구단지 안에는 14개 연구구역과 41개 연구센터가 자리잡게 된다.

이번 연구단지 조성은 학문간, 산학간, 국제기관간의 융합을 통해 무한 경쟁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신문 제공)

공과대학

동경대와 공동강의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4월 16일 일본 동경대 공학부(부장 마쓰모토)와 우수 강의의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국제 공동강의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우선 올해 2학기에 모교 공대의 대학원 강의 두 과목이 동경대에 중계되며, 마찬가지로 모교 공대의 대학원생들도 동경대의 강의를 두 과목 수강할 수 있다. 교환되는 강의는 모두 영어로 이뤄지며 인터넷으로 상대 대학 강의를 연결, 강의실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교수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공과대학은 국제 공동강의에 참여한 교수 및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분야별 수준이 비슷하고 시차가 적은 중국 청화대, 일본 교토대·오사카대·도쿄공업대 등과 국제 공동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교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강의 평가 등을 통해 Best Teacher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재교공학부 柳漢一교수, 전기컴퓨터공학부 朴煥烈교수, 기계항공공학부 李廷勳·崔海天교수, 지구환경시스템공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⑩

玄石 玄濟明선생 흉상

玄濟明(1902~1960) 선생은 1945년 경성음악학교를 설립했으며, 1946년 모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다. 1950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극 '춘향전'을 작곡·지휘하고, 1958년 가극 '왕자 호동' 등을 작곡했다. 선생의 업적은 음악교육과 창작활동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연희전문학교 재직 때에는 관현악단·취주악단·합창단·중창단 등을 조직하기도 했다.



대표작품으로는 가극 '고향 생각', '산불비람', '그 집 앞', '희망의 나라로', '나를 깨는 처녀' 등이 있다. 1961년 10월 16일 선생의 공적을 기려 기념하고자 음대동창회에서 흉상을 제작, 관악캠퍼스 예술관 34동 입구에 세움.

학부 崔鍾根교수, 화학생물공학부 車國熙교수 등이 우수 동경대생을 위한 강의에 참여키로 했다.

본회서 체육기금 전달

야구·럭비부 등 지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6일 모교의 재학생 체육활동 활성

화를 위해 모교 야구·럭비·미식축구·축구·하키부에 각각 3백만원씩 총 1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탄발울을 흘리고 있는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온 본회는 2003년에 럭비부, 올해는 축구부와 하키부를 추가 지원했다.

알림

4회 동문 바둑대회

7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일시: 2007년 7월 8일(일) 09:00~17:00

장소: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참가대상: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단, 야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진행: ①단체전: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棋力別 64명 이내): OB조와 YB조로 분리
※ 총 호선(별 64명만 공개), 스위스 리그

신청: 2007년 6월 26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c.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c.kr

참가비: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시상내역: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기타: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오시는 방법:

①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 마을버스(2번) 서울대 후문 하차
②승용차: 남부순환도로 낙성대 입구 - 서울대 후문 왼쪽 방향

문의/사향: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동문 위한 '도서관 회원제' 서비스

중앙도서관(관장 朴明珍)은 올해 2월부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문들을 위한 '도서관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도서관 대출, 외국상호대차, 원문복사, 연구지원 등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웹DB(전자저널, 전자책) 등의 전자자원, 모교 생산 지식정보자원 등을 자유롭게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면 '도서관 회원'이 되며,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이용자특화서비스/도서관 회원제 신청 → 사진 입력 → 온라인결제(연회비) → 카드발급(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이용범위: 도서관대출(10책 30일), 외국상호대차, 소장 학술지 원문서비스, 인터넷디스크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e-Book 이용, Database 및 e-Journal 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상호대차실(880-9375)에 문의 (발)

SPC그룹 許英實회장

45억 기증...산학 연구건물 건립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4월 6일 SPC그룹(회장 許英實·사진 右)과 산학협력 연구용 건물의 건립 및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PC그룹은 1945년 설립 이후 60여 년의 제빵 노하우를 통해 일기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의 프



랜차이즈 기업과 사너, 삼립식품, SPL(물류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전문그룹이다.

모교는 SPC그룹이 출연한 45억 원으로 관악캠퍼스에 3천3백㎡(1천평)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多學際間 연구활성화를 위한 공간확충으로 기능성 식품, 환경, 헬스 사업에 관한 산학협동 연구 등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대 총학생회장에
미학과 한성실 군 당선

지난 4월 19일 모교 총학생회 재선거 개표 결과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선거운동본부의 한성실(미학과 03학번·사진 右·박찬섭(법학과 02학번·사진 左) 후보가 50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선관위는 전날 마감한 투표 집계 결과 유권자 1만8천1백34명 중 9천3백15명이 투표해 투표율 51.37%로 개표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개표를 진행, '스포트라이트'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고 말했다.

모교는 지난해 11월 연장 투표까지 해가며 총학생회장 선거를

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 실투표수 9천3백5표 가운데 31.59%인 2천9백39표를 얻어 2위인 '나'(NA)선거운동본부를 1천1백31표 차이로 제쳤다.

의대 徐維憲교수

치매 치료 항생제 발견

염증을 억제하는 항생제의 일종인 '미노사이클린'이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교 의대 약리학교실 徐維憲(의학67-73)교수(사진)가 지난 4월 11일 "항생제로 잘 알려진 '미노사이클린'이 뇌에서 신경세



포 사멸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徐교수의 연구팀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과 독성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을 마치고 약 3년 뒤 이 물질들 치매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저널인 '신경정신약리학' 4월 4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팀이 치매에 걸린 실험쥐에게 미노사이클린을 투여한 결과 죽어가는 신경세포가 4분의 3 정도 줄었고 쥐의 기억력도 2배 이상 향상됐다.

徐교수는 "미노사이클린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O단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재학생의 소리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林炳善

(농경제사회학부 00입)

4학년 재학생

가 학교에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 캠퍼스가 너무 넓고 건물이 많아서 강의실을 못 찾아 팔팔했던 2000년 4월의 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도서관 앞의 잔디밭과, 봄이면 그 화려한 옷맵시를 자랑하던 나뭇잎들과, 분주히 강의실을 찾아 이동하는 화우들의 모습이 변함이 없기 때문일까요? 학기의 시작이라 정신없이 지나가는 3월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관악의 4월은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달이며, 그 추억이 너무나도 그림고 소중한기에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한아리에는 먼저 제일 큰 돌부터 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마지막이라는 한아리에 제가 제일 먼저 놓아야 하는 돌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못나고 부족한 제가 무시한 모든 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깨에 큰 짐과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남에게 도움 받기를 무척 싫어했던 저였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행복감을 알게 되면서 점점 누군가의 도움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대학 과정 내내 카디라 아저씨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신 저에게는 아버지처럼 묵묵히 뒤에서 도움을 주신 洪姓대 상

신학원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뒤에 서서 잘 지켜봐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텐데 8학기동안 장학금까지 주셔서 그 큰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같이 시작한다는 말처럼, 마지막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새로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길이 끝나는 즈음에 서 있는 지금 저 앞에는 사회인의 길이 시작되고 있음이 보이고, 그路上的 이정표에는 시작과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보입니다. 마지막의 의미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소중한 도움에 가장 잘 보답하는 것이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자고 스스로 제 자신을 독려하며 글을 마칩니다.

동문기자 회재수첩

동문기자 회재수첩

정의가 왕따 되는 세상

항생제 없는 가축 사육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현역 정치인의 비리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영권의 한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쌀 도정공장에서 대북 지원용 쌀을 빼돌려 수 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 쌀 수 만을 도정하면서 책임생산량 초과분을 몰래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문제의 도정공장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한 간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가 이 회사의 불법을 고발한 것이다.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터이지만, 필자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의 정치인보다 바로 이 고발인에게 눈길이 갔다. 상세한 증빙서류를 갖춰 회사의 부당이익을 고발했더니 이 '내부 고발자'가 돌연 '고발 취하 각서'라는 생소한 이름의 문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다.

이 간부가 스스로의 고발 행위를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취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간부가 겪었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중압감과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이 간부는 형식적으로는 소속 회사와 해당 의원의 부인을 고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양극 가공업체 전체의 탈법적인 관행을 고발한 것과 다름없다. 필자가 이 전직 간부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라고 판단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한 재단의 저술 지원을 받고 최근 수 개월간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을 집중 취재해오고 있다. 공익 제보자로도 불리는 이들은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어 조직의 불법을 고발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 부는 호각 소리는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공동체의 이익 수호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이들 의로운 약자들은 세상을 향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바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공동체의 이익 수호를 위해, 또는 내면의 정직한 목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호각 소리를 낸 이들의 품위나 인격은 불법의 출발점이자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여지없이 유리당하게 된다.

필자가 만나 본 공익 제보자 대부분은 자신의 조직에서 좌천이나 징계 등을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여러 압박 중 가장 감내하기 힘든 것은 동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당할 경우라고 털어놓고 있다. 징계나 좌천 등 제도의 형

을 가한 보복보다 이에 편승한 동료들의 '왕따'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이정호(36)씨는 강원도 한 군청의 공무원이다. 그는 해당 군수가 욕심을 내고 있던 자리에 견줄거리를 신중한 주인의 민원을 인허가 행정의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거절토록 지시한 군청 간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군청과 동료 공무원들의 보복은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미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요. 가족들은 못 살겠다고 이사 준비까지 해 놓았어요." 이씨는 내부 고발을 하면 조직 내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옳은 일을 해 놓고도 당하는 꼴을 보려고 물러서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려 했겠느냐는 게 이 젊은 하위직 공무원의 변이다.



柳 乙 相
(외교82-86)
이슈이이 논설주간

물론 내부 고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선 조직 내부에서 해결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 내부에 독자적인 통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는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안의 통제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바로 바깥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정의로운 내부 고발이 아니라 비열한 '밀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

공익 수호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보복에 방치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과 양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열치 있는 보복수령들이라면 이들 '의로운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리라. 국가와 시민이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들의 낙담과 절망은 마침내 공익의 호루라기 소리를 멈추게 한다.

앞의 쌀 도정공장으로 돌아가보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쌀 도정업체의 탈법적 관행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시스템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남해안 통부지방의 한 시민이 본 호각 소리에 검찰은 불법 관행 척결이라는 '공익 수사'로 답을 해야 한다.

"어머니, 손에 들고 있는 노란 가루는 뭘니까?"

"응, 이거 병아리 물 좀 때 마 먹일 항생제여."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어린 시절 여름철에 타 먹던 노랑 주스가루 같은 항생제가 들어있다. 담양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올해부터는 닭도 키워보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이 키우던 닭 몇 마리를 주면서 사료도 반 포대를 건네주었다. 사료 포장지를 언뜻 보니 '000마인신, △△△마인신' 등 항생제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항생제가 섞였다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머니가 주신 것을 그냥 두고 쓸 수는 없었다.

닭을 주말농장으로 옮겨 놓고서 우선은 어머니가 주신 배합사료를 먹이면서 항생제가 없는 사료를 찾다가 마침내 현미 싸



宋 道 勳
(신문83-88)
광주방송 정책심의실장

라기를 한 가마니 구했다. 아직 병아리 티도 못 벗은 닭한테 현미 싸라기와 대나무 잎을 먹여주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동네 사람한테 얘기했다니 닭이 마약 닭이 다 죽을 거라고 말하더라'며 크게 걱정을 하신다. 하지만 농장의 병아리한테 현미 싸라기보다 거친 벼파와 왕겨까지 먹였지만 아무 닭 없이 잘 자라서 지금은 재배 닭이 되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분들이 만류하는데도 내가 굳이 거친 자카시트로 닭을 키우겠다고 한 것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섞인 배합사료로 키운 닭의 배설물은 유기농업 발농사에 퇴비로 부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난해부터 자연농업과 유기농업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꼭 실천해보고 싶었던 것이 발농사와 축산을 연계한 유족 복합농업이 유족 순환농업이었다. 소나 돼지 기르기는 닭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닭은 한 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 닭의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Roxarsone이라는 물질로 인해 유기 毒素 물질이 더욱 독성이 강한 무기 毒素(inorganic arsenic)로 변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쟁

이 일고 있다고 한다. Roxarsone(3-nitro-4-hydroxybenzene arsenic acid)은 미국에서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사료 첨가제인데, 이 물질이 포함된 닭의 배설물이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되면서 농경지나 지하수가 발암성 비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닭 농장 근처의 먼지에서 비소가 높게 검출돼 독성 물질이 호흡기로 흡수될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Applied and Environment Microbiology 3월호, Feedstuffs 2007년 3월 12일자/ 웹사이트 '자연을 닮은 사람들'에 인용 게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상성 할인점이나 백화점 식품코너에 가면 무항생제 제단이 많이 나와 있다. 산란기간에 항생제를 먹이지 않았거나 예초부터 항생제를 먹이지 않았다는 광고문안이 믿음직스럽게 보인다. 가축과 사람한테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 항생제 없는 가축 사육은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와 항생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올해 초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연구진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들, 심지어 실험실 수준에서 사육되는 닭들도 일반적인 항생제에 높은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나 항생제를 사용한 농가가 큰 차이 없이 특정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73%에서 97%나 되었다고 한다. 가금류에 대한 항생제 사용금지지역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줄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비율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닭 몇 마리 키우면서 항생제 없이 현미 싸라기와 야채 등 자가사료로 닭을 키우겠다는 것도 괜한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런 순박한 노력은 자기 위안은 될지언정 항생제 내성 문제 같은 현실적인 재앙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보일지 되지 않을 것 같다. 항생제 내성 문제의 책임을 농장의 항생제 사용 탓으로만 돌리자고 하는, 한 두 가지 원인에만 책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가축의 성장 촉진과 질병 치료를 위해 투입하는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 화학합성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줄이지 않겠다는 듯이 계속 관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농약으로 인한 오염과 비료 과잉 사용으로 인한 질산염 오염 등 환경과 생태계의 위협이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서로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의 고리를 잇기 위해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동문기고

교육평준화의 어리석은 환상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 사립대 총장들이 또다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부 당국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실제적으로 독자적인 입시전형제도를 채택할 뜻을 천명함으로써 교육정책 당국과 상한 대학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교육부가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대학입시의 '3불정책'을 철대로 구사해왔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서 연유한다. 그러자 각 대학들은 수년동안 그러한 정책을 강요당해 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뜻이 반영되고 나선 것이다. 대학들은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대학교육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소위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의 본고사 불가, 각 고교의 등급제 불가, 기어입학제 불가 등 세 가지의 불가원칙을 말한다. 대학에서의 비판과 반발은 그 3불정책을 허물지 않으려는 입시에서서의 변화만을 찾기보다 사회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는 것과 사과의 재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어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서는 대학입시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념 대립과 인식의 차이가 따른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 당국은 '인간평등'의 이념 추구



朴 衡 圭

(정치48-57)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를 위해 교육제도 평준화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을 비롯한 일반 교육담당자들은 그런 평준화교육은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견지에서라도 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대학입시의 3불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단 대학들에서만 그치지 않고 초·중·고 등 전국 교육자들의 최대 연합체인 '대한교육연맹회'까지도 대학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인간 평등화를 위해 교육까지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발상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갈

대'로 인식한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평등하고, 또한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은 인간의 인격과 인격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지능과 능력까지도 평등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은 언뜻 보아서는 대동소이한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인간의 능력은 천차만별로 만이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교육평준화란 이렇게 인간의 능력 차이를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결코 순리적인 발상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시대와 지식산업화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치열한 두뇌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두뇌 개발제도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대학은 바로 그러한 영재교육의 요람이요 도장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평범한 인적자원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다. 그러한 보편적인 인적자원의 양성을 집중해서 초급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은 교육의 최고봉으로서 그러한 고급 교육기관과는 달리 지도급 인재의 배양과 두뇌 개발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각 대학은 보다 우수한 두뇌 개발을 위해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내다줄 수도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또한 사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이 그러한 각 대학의 그런 행위를 견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간능력이야 지적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말하자면 같은 지로 같이기를 재바이 물건의 장단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아 그 무게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입선 교육계가 당국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드는 근본요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영재적 재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국가적 우수한 두뇌로 개발시키려는 대학의 의지와 노력은 곧 국가적으로도 지적 경쟁력을 제고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러한 대학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존경할지언정 그것을 견제한다는 것은 언언도단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어찌하고 국가적 지적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대학의 평준화교육을 고집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대학교육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똑같이 교육평준화를 지향한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오늘날 각국은 민간의 경쟁만 인력 양성에 두지 않고, 그보다 나은 공적 지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에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대학은 그러한 한 사람의 천재를 발굴하고 길러내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평등해야 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능력 격차만큼은 결코 평등할 수도 없으며, 또한 평등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평준화를 통해 사회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생과 세 가지 '중요한 만남'

아주 오래전에 공자가 말씀한 이슬을 넘어서서 이제 70대에 들어서다 보니, 세월이 지나 갈수록 '만남'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누군가 많았을 이생이란 '만남의 역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인생이란 만남이고 나뉘임이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란 생애가 되는 것이다. 만남과 나뉘고 즐거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행복이고, 천국이요 사실을 기록해놓은 간조한다.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만남과 나뉘고 즐거움의 이야기라고 어느 목회자는 주장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물들을 독생자로 찾아 오셔서 만나시고, 우리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다. 사실상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 같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여 어려울 때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좋다고 부자집에 태어나서 못했을까?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뒷받침해 주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렇게 멋지게 잘도 생기고 기도 환할만한 사도도 많지만, 왜 그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모양,



金 容 瑤

(논화45-61)

前배화여대 교수

요 필경'과 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남은 곧 인연이요, 운명인 것을 어찌하랴! 비교적 많이 애정되는 '만남'이란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잘 표현해 주듯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엄청난 전생의 인연이 있어야 (불교적 시각이지만) 이뤄질 수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람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워라'. 원래 이 노래는 남자와의 만남과 사랑을 말하려 했던 것이었지만, 아무런 거대하고 부추는 듯한 부모님이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남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오히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더 분발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닐는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고, 또 자라나기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다. 최근에 와서 좋은 친구와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로는 역시 훌륭한 스승들을 잘 만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주몽'이란 TV연속극이 끝나는 바람에 방송 볼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 때 TV연속극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며, 심지어 직장인들도 그 방청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찍 귀가하는 바람에, 음식점과 술집들이 대부분 손님이 없어 폐업한 현상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택시 운전사까지도 그 시간에 영업을 아예 중단하고, '허준'이란 TV연속극을 보기 위해 근처 다방으로 몰려들었다는 것만, 동의보감까지 저술하며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허준이 그 같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까?

정말 스승을 잘 만나 훌륭한 인물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허준도 앞에 걸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를 지경에 있던 스승이 양의 편지를 받고 그 신도 각 기관의 형태와 기능을 알게 하기 위해 손목의 찰을 끊고 자살함으로써 자기 몸을 생물로 개복수술까지 하도록 명명한 스승의 큰 스승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명'의 '가' 될 수 있었겠는가?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평생을 함께 할 훌륭한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일이다. 백년해로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자기 주전도 없이 죽은 듯 평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든, 요즘에는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하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 하룻밤만에 깨지는 세 가지가 많다는 서글픈 뉴스가 자주 들린다.

세 살 결혼에 한 쌍 정도의 세 가지가 별거다. 이혼이나 하여 쉽게 헤어지는 관계이니, 이런 뉴스나 통계자료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선진국의 많은 다른 점은 없지만, 뚝뚝 것만 따라가는 지 한심하기만 하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 특히 처녀, 총각들은 상대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매사를 세밀히 관찰해 정말 한 쌍의 원앙새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파트너를 잘 골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마음을 결정해 결혼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상대의 나쁜 점은 넓은 사람과 아랑으로 감싸주는 반면, 상대의 좋은 점만을 발견하며 애쓰는 인내심이 있는 습관을 기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특별한 젊은이일수록 과거를 더 청산하고, 선택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또 한해가 된 것 같다. 요즘 같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에는 국민 모두가 '세 가지' '서 있는 위치'와 대가' '괴된 누구인가'를 스스로 깨우쳐서, 앞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 친구와 사제간, 또 배우자 관계든 정든 '좋은 만남'이 되어서, 잊고도 행복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서로를 돕는 최선을 다해 가는 길을 밟아 본다.

동문 기고

고추장 듬뿍 넣어 비벼 먹자

아들아, 그리고 딸아아! 축하하는 마음 보낸다. 낡은 세대의 부모입장에서 빼어난 인물이 되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못내 개략적이지만, 획기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아무도 이런 생각을 나누려 하지 않은데 열미처럼 이 글을 띄운다. 식탁 위의 고추장에 싸여 먹어 보려나!

‘땅속의 씨앗은 자기 힘으로 무거워 흙을 들치고 솟아 나온다’는 그 힘을 자기는 갖지 못하면서 자식들은 가져주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목심 아니겠나? 또 그애야 자꾸 진화하는 게 자..

누군가 한때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라고 했다. 정말이지 사야가 확 트인다. 시냇가로 ‘TRIIZ’ 방식으로 의식을 바꾸라는 말이고, 울조리지 말고 풀치라는 말뿐이다.

지정학적으로나 시대조류로 보아 한반도 민족은 엄청난 큰 덩어리의 중국과 약소배트고 치밀한 일본과의 틈새에서 지금의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성의 전환이 없으면 참으로 파곤하고 고개 수그러는 삶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즈음 조기유학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게 아닌가 싶다면, 돌아오지 않는 유학이라든 모국이라는 깊은 뜻은 알아야 하리라.

반도 반만년 역사 중 우리가 알고 있는 2천년. 그 지난 찬란한 역사에는 기성이 넘치는 광개토대왕이 말 타고 버티고 있었지만, (그 역사마저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백색조각 함



金 洙 榮
(동화회59-65)
한일종합식품
기술이사

게 잃어질까말까 하는데, 속수무책이 상해인양 그냥 그냥 아니겠지... 참!

그 역사책의 뒷장부터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론 평가에 질렸을 때 살기 위해 꿀꿀거린 역사뿐이다. 울조린 역사다.

천년의 긴 세월 속에서 정말 구한말의 ‘열점’ 같은 자포자기적인 ‘사대주의’ ‘노예근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민족성.

과연 어디서 물려받은 유전인지일까?

미국이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풍부한 인적·물질적 자원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 옛날 영국과 유럽에서의 삶의 역경으로부터 황거 나간 이주민들로 형성된 ‘도전정

신’이 아닌가 싶다.

밖이나 꿀꿀거렸고 그게 누적되어 분노하고 Boston항쟁이 되고, 그때 그 뱃전에서의 총성도 독립전쟁의 불길로 솟아, 종래에는 자연과 더불어 조용히 살고 있었던 인디언족까지 싸움을 하면서 ‘New Frontier’를 외친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야수열강으로 ‘인권’을 부르짖기도 한다. 짧은 세월 속에서 강력하게 약동한 미국의 역사이고 미국정신(?)이다.

다재로 동양의 정서는 정적이고 서양은 동적이라 할 수 있겠다. 서구의 동적 유전자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농경문화와는 달리 그 옛적 유럽은 빈약한 지하수자원으로는 농업이 되지 못했다. 척박한 토양에서 때로는 문화(遊牧生活)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삶의 터전이 열악하리자라 부딪히 살아 남아야 했고 움직이는 식량(가축)을 들고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 다니다니 님새의 경계를 넘게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와 적게는 싸움으로, 아니면 집단적 패거리 싸움 다시 말해 전쟁으로 살아남아 왔으리라.

맹수 같은 적국성에서 도전적인 행동이 따라야 먹이를 찾을 수 있고 또 종족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 꿀꿀거림이 아니라 풀과 풀벌레를 수렵에 없었겠지.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중동의 사막을 뒷방으로 삼았던 유목민의 호전성(한 손에 코요한 한 손에 칼)이 그렇고... Viking족이 바다가 좋아서 Viking이 되었을까?

아예 반대로 풍족한 물결을 내는 비옥한 토양과 적절한 기온을 갖춘 우리네는 절기에 따라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나, ‘도전’이나 ‘의식전환’이 ‘와’ ‘무엇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 조차 없었으리라. 점잖아 재만인 히브로... 일년을 볼 여려 가을 겨울 내 번 지르고, 또

24절기로 토막내어 농사를 지어야 하나, 나무의 나이테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인제나 곡식이 익는 동안이 지역보다 바쁘기는 바빠 수확에 없지 않았겠나! 해서 서구의 도전정신이 아니라 ‘근면정신’이 어느 민족보다 뚜렷한 유전인자로 우리에게 형성되었겠지. ‘근면’, 참 좋은 것이지. 꾸준하기도 하고, 그런데 초식성 민족이라서 그런지 도전과 같은 ‘역동성’이 없고 ‘잔인성’이 없어, 그래서 싸움 줄도 ‘질’ 모르고 탐낼 줄도 몰랐어.

반도 후 오백년 역사는 이 같은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울조리고 도사린 역사를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창칼 들고 뱀바는 이웃에게 호미 들고 부딪히 보니 힘은 부족하고, 그러나 ‘아이구구’하며 무릎꿇고 ‘형님’할 수밖에 없었겠지.

‘대국’이나 ‘형제국’이라 하며 ‘외의(심은 아부이지만)’를 내세워 민심을 잠재우고 조공을 바치며 소수 지배층은 자기 등(背) 따스고 배를 붙일 재주 있으니 ‘사대근성’ ‘노예근성’ 같은 유전인자를 개량(힘을 기울)할 생각은 아예 접어뒀다고 해야겠지. 이게 우리 반도의 지정학적 역사라 할까. 한때 아들은 서글픈 역사비극을 배우려 하지도 가르쳐려 하지도 않고 제대로만 개척하려하니 어찌 하오리요.

오늘의 생명공학에서의 Genom지도는 호미로 파헤쳐 보아도 이 같은 유전인자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체질(體質)’라 해서 마음에서 오는 형질인가!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딸아아! 지니고 있는 근면의 유전자와 수입되고 있는 도전정신, 그리고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유모어에 빠질나 고추장을 듬뿍 넣어 먹어 보려나! 한민족의 대표음식?) 그게 우리 고추장 비빔밥 아닐까? - 낡은 세대의 이야기.

百歲人生 위한 계획된 준비

우리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최고라는 사실은 누가 대다도록 듣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선진국이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대개 1백년 걸려 대비하는데 비해 우리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어 평균수명이 85년에 68세가 지금은 78세로 불과 20년 만에 10년이 늘어났는데 2030년 이후에는 1백세 인생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앞으로는 ‘재수 없으면 1백살 산다’는 말도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누구나 1백살까지 살게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과연 1백세 시대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 시대는 사회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어 국가와 개인이 총합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장수가 행복이 아닌災殃이 될 것이다. 우선 소재의 기구구조 변화로 노후를 재배의 의지하는 것이 불리적으로 불가능해져서 ‘노후는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재배에 재산을 상속해 주던 평행도 본인이 다 쓰고 갈 수밖에 없어서 상속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한편, 20년 벌이 20년 노후를 살아가는 현 시상은 ‘40년 벌이 40년 노후를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여기에 청년연장 또는 폐지와 임금피크제 등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는 개인 차이의 노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전체가



李 鎬 甲
(득문74-78)
삼성노블카운티
사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곧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더욱 파루로 느끼게 된다. 40년 소득 벌이 재배하는 기간인 노년기의 생활비 총량 이외에도 80세 노인이 되면 의료비 및 간병비가 급격히 소요될 생활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수발보험제도 등 사회보장 장치가 충실치 못하면 노후문제는 쓰나미처럼 커다란災殃으로 닥쳐올 것이 뻔하다.

점점 늘어나는 은퇴기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노후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국내 여러 금융기관 및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노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노후자금을 대개 기초생계 수준의 생활 즉 ‘블랙’(불량백수), 기본적 문화생활 즉 ‘보백’(보통백수), 풍요로운 노후생활 즉 ‘화백’(화려한 백수)’으로 구분해 필요한 자금을 소개하고 있다.

65세 부부가 20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소위 일반 먹고사는 블랙의 경우 약 4억원, 1년 여 한두 번 해외 여행과 기본적 건강검진, 통상의 취미생활 등을 즐기는 보백은 약 8억원, 유럽 여행, 크루즈 같은 고급 해외여행과 골프, 와인 등 고품적 문화생활을 즐기고 정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화백은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기에 수입 30%를 은퇴 전 30년 투자는 최소 30년 준비하는 ‘30·30·30 법칙’이 중요하며 노후대비는 ‘누구나 준비해야 하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 알찬 대인관계, 일자리 및 봉사활동 등에도 세심한 관심과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며 균형적인 영양섭취와 적절한 운동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운동을 생활화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퇴직 이후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호회나 지역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은퇴하고 나면 첫 해는 골프 모임 등 불려주

는 모임이 10여 개 이상 돼 현직에서보다 더 바빠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1년에 모임 개수가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법칙을 많은 은퇴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부터 여러 취미활동에 참가해 소위만 고독한 노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노후인생 준비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평생교육도 중요하다. 대학 캠퍼스, 종교기관, 복지관, 공공청사, 지역사회 시설 등이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은퇴 전후의 노인들이 배움의 장으로 또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예기하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7-Up 생활수칙(Clean-up, Cheer-up, Dress-up, Show-up, Shut-up, Open-up, Give-up)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은 욕심을 없고 봉사의 삶을 사는 Give-up 생활일 것이다.

주요의 이로서는 중에도 이런 봉사의 삶을 사는 분들이 가장 멋진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며 굳이 별 게 아니니 워낙 바쁘고 같은 인사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오고 풍문 전해줄 중에는 이런 봉사의 노후생활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건전한 선진사회로 가고 많은 은퇴자들이 후배세대를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후유문화를 만들기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신간

素然

— 柳丁姬 지음



경인교대 柳丁姬(성악 55-59) 명예교수가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 柳동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일은 꼭 무엇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주위에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준 분들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길이 새기고자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맑고 깨끗하고 소박한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제목 '素然'처럼 柳동문이 조용히 걸어온 70년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柳동문의 부친은 1930년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를 1회로 졸업한 柳成濤(성도)이다. (사망인원: 2003년)

같이 내일을

그리던 어제

— 金炯國 지음



원 장관)등문과 崔順熙(철학52-57 출신) 석좌교수)등문의 왕복 서한집.

이 책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 崔士의 崔대통령 30대 후반의 崔대통령등문과 한국일보 특파원이었던 30대 초반의 何興齋 崔順熙등문과 주고받은 편지 52통이 담겨있다.

이 책은 李鴻文과 崔동문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1960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예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국과 시대를 걱정하는 두 젊은이의 열정과 순수가 묻어난다. 아울러 한국미래회의의 탄생 배경도 들어 있다. (시그마프레스·2007년 5월)

문학 사냥꾼들

— 李彰國 지음

중앙대 영어교육과 李彰國(영 어교육60-64) 명예교수가 이색적인 제목의 저서를 내놓았다.

207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화자들은



글자 그대로 맹수를 잡으려 협준한 산 속에 들어선 사냥꾼들이며, 사라진 원고·문헌을 찾아

긴 여행을 하기도 하고, 동굴 속을 탐험하거나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사적 지식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진 것은 없으며, 어찌까지의 진실이 내일에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문연구에 임하는 학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아모르문다·2007년 12,000원)

새한불사전

— 한국불어불문학회 지음



이 발간됐다. 편찬위원장을 맡은 모교 鄭智榮(불문56-61) 명예교수, 사전 편찬을 기획하고 그 기초연구를 전두지휘한 洪在星(불문64-68) 교수, 후반 교열작업을 총괄한 이주대 朴晳珪(대학원83-85) 교수 등이 이 사전 출간의 산과 역할을 했다.

이 사전은 현대 사전학 이론에 따라 편찬된 최신판으로 현대 한국어 고빈도 8만여 표제어를 일선해 풍부한 실용적 예문과 10만 이상의 용례를 수록했다.

또한 최근의 신조어들과 생생한 구어표현을 담았으며 어휘간 결합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냈으며 한국, 프랑스 등 국내외의 최고 권위의 집필진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록으로 제시·간판·공고·광고문, 컴퓨터용어, 영어약어, 세계의 지명, 수도, 화폐명, 대한민국·프랑스 기관, 국제기구, 한국어 문법·용어·용례·용구 등을 실어 배우자 학습의 집합 역할을 해 준다. (한국어대출판부·2007년 4월 40,000원)

鄧小平과 중국정치

— 金永文 지음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金永文(사학 64-69)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동소평 사후 10년 간의

전시

東江 趙守鎭 書畫展

— 5월 1~27일 예술의 전당

원로서예가 東江 趙守鎭(화화 47인)등문(사친 左)이 지난 5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 특별초대 현대작가특전전을 개최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1986년 이후 21년만의 개인전이고 작품수도 서예, 문인화 등 2백여 점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는 趙守鎭 墨緣會·동강서화전추진위원회(공동회장 林光洙·趙守鎭·李壽成)가



한국 서예의 좌절과 회망을 동강서예전을 통해 조명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趙守鎭은 모교 재학 중 제1회 국전에서 특선했고, 그 후 연4회에 걸쳐 특선을 거듭해 초대작가가 됐다. 제12회 국전에서 연소의 나이로 국전 심사위원을 거쳐 국전 운영위원장,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국제서법연맹 회장, 대한민국 서예문인회 원로총연합회 총재, 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 丁海昌 前법무부 장관, 李俊 예술인 회장, 白文基 예술인 회장, 權昌倫 국제서법에술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작가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

테너 劉美世 독창회

— 5월 19일 영락교회 신교관

세익스피어를 노래하는 소프라노 許美京 독창회

— 5월 28일 세종문화회관

徐允喬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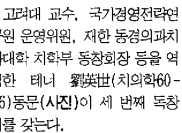
— 5월 14일 세종문화회관

— 5월 25일 창원 성산아트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연주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피아니스트 徐允喬(기악94-98 동아대 강사)등문(사친)이 서울과 창원에서 두 차례의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徐동문은 이번 연주회에서 클라리 수만, 베토벤,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생상스, 프로코피예프 등의 작품으로 활동한 선율과 비범한 기교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서울 391-9631, 창원 011-855-4120)



고려대 교수, 국가경쟁력연구원 운영위원, 자한 동경의과치과대학 치과부 동양학자 등을 역임한 테너 劉美世(의약학60-66)등문(사친)이 세 번째 독창회를 갖는다. 劉동문은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金宇煥(생물52인)등문에게서 성악을 사사했으며, 현재 치과대학원을 운영하며 인제대 의대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이날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남', 토스티의 '4월', 조다닉의 '그리움', 채동선(의약학81-85)교수가 부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지난해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라 트라비아타' 등 세련된 오페라 주역을 맡아 공연한 바 있는 소프라노 許美京(성악81-85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등문(사친)이 5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채민버울에서 독창회를 연다.

이남 쾰터의 '3개의 세익스피어 가곡'을 비롯해 클라크, 베르디, 비슈, 슈트라우스, 바버 등을 작품을 노래한다. 모교 국제대학원 鄭東來(사학 81-85)교수가 부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등소평과 중국 정치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향후 전망에 관한 것으로 13편의 중국관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특히 등소평 정치의 특이점이랄 할 수 있는 숙청없는 보수·개혁간 노선투쟁과 조정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본문은 먼저 등소평의 실사구시 사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등소평의 사상이 오늘날 중국의 국가적 목표설정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런 다음 등소평 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脫중양권화와 反권화 갈등구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근면적 영향을 미친 등소평 사상의 이론적

역할을 살펴본다.

끝부분에는 중국공산당 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수록해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탐구문단·2007년 5월 15,000원)

하버드MBA의 경영수업

— 呂翰九 지음



呂翰九(경영88-9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강사)등문

이 하버드 MBA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HBS)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먼저 MBA가 왜 필요한가를 시작으로 하버드 MBA 과정의 특징, HBS의 역사, HBS의 특별한 경영수업, 서머턴십, 아시아 비즈니스 클럽, 입학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중간에 '등문 인터뷰' 코너를 통해 선택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또 마지막에는 리튬원 싱가포르 전 수상, 원자번호 중국 총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루 거너 IBM 전 회장, 잭 웰치 GE 전 회장, 워런 버핏 등 저자가 하버드에서 만났던 세계의 명사들의 이야기도 수록하고 있다. (더난출판·2007년 15,000원)

동정

수상

▲**韓相泰**(의학49-55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지난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2회 대한의사협회 회이자 국제협력 특별공로상 수상.
▲**李偉泰**(국문52-56 중앙일보 상임 고문)=지난 4월 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류회사 로알 삼루트기 수여하는 제2회 '마크



오브 리스펙트' 수상.

▲**盧昌熹**(상학56-60 前외교차관·아시아유럽 재단 한국이사)=지난 4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아시아유럽미래학

회가 수여하는 제4회 글로벌CEO 대상(외교통상부문) 수상.

▲**申慶植**(역사교육57-61 상명대 석좌교수)=지난 4월 9일 서울 뉴 국제호텔에서 역사학자 癡菴 申秉鎭(사학26-29) 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24회 치암학술상 수상.

▲**朴 實**(정치58-63 前국회 사무총장)=지난 4월 19일 서울 유유리 국립4·19묘지에서 열린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건국포장 수상.

▲**李正吉**(동물학59-63 사품의약 품안전청 자문관)=지난 4월 7일 제35회 보건 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추증.

▲**鄭秉淑**(가정교육59-63 중앙대 명예교수·생물대 동창회장)=지난 4월 20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의류학회 총회에서 제9회 '이홍수 저술상' 수상.
▲**李容璫**(전자공학60-64 KT 경영 고문)=지난 4월 24일 아일랜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수



여하는 '프레드릭 필립스 어워드' 수상.

▲**權旭敏**(전기공학62-66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4월 2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



식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金萬吉**(역사교육62-66 前서울신문 사장)=지난 4월 19일 서울 유유리 국립4·19묘지에서 열린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건국포장 수상.

▲**李清復**(독문66졸 순천대 석좌교수·소설가·예술인 회원)=오는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17회 호암상(예술상) 수상.



▲**崔炳寅**(의학68-74 모교 방사선과학교실 교수)=오는 6월 12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럽복부방사선학회회가 수여하는

2007년 명예학자상 수상.

▲**任志淳**(물리70-74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난 4월 2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장관 표창 수상.

▲**丁相郁**(수학75-82 미국 멤피스대 석좌교수·포항공대 석좌교수)=오는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17회 호암상(과학상) 수상.



▲**朴政一**(제약75-79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4월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신학협동재단이 수여하는 제29회 신학협



동상 대상 수상.

▲**朴壽永**(섬유공학76-80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4월 1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상설토론회가 재장한 삼성고분자화학



상 수상.

▲**李美敬**(가정관리77-81 CJ엔터테인먼트&미디어 총괄부회장)=지난 4월 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제39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林惠媛**(화학교육81-85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4월 20일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柳仁鈞**(의학84-88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지난 4월 12일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약물의

존연구소가 수여하는 '2007 국제

저명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申秀貞**(기악59-63 모교 음대 학장·피아니스트)=최근 한국



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리즈콩쿠르 심사위원에



위촉.

▲**金 旻**(기악60-64 모교 기악과 교수)=2009년 5월 벨기에 브

뤼셀에서 열리는 판렐리자베스콩쿠르 심사위원에



위촉.

▲**姜信旭**(법학63-67 前대법원 대법관)=지난 3월 28일 한국인문윤리위원회 제81차 이사회에서 위원장에 인



준.

▲**韓惠珠**(경제67-71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지난 4월 2일

국회 입법동의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



▲**金鍾民**(행정68-72 前문화관광부 차관·한국관광공사 사장)=

지난 4월 19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산업사회연구소장)=

지난 4월 7일 한국사회학회 제3대 회장에 선출.



▲**河哲容**(법학68-72 前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



▲**李命默**(의학69-76 前모교 내과 교수·동국대 일

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지난 4월 4일 제2대 동국대 일산병원



장에 취임.

▲**朴盛鎭**(국어교육71-79 前동대 교수)=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고문서학회 제8대



회장에 취임.

▲**韓凡惠**(동양사학72-76 前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정무부지

사)=

지난 4월 19일 행정자치부 제2차관에



임명.

▲**鄭寅億**(경제73-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APEC 정보통신실무

그룹 의장)=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위

원회 회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의장에 선임.

▲**禹濟昌**(생물교육74-78 前전국 대학연구처장협의회장·목포대 교수)=지난 4월 2일 한국학술재단 사무총장에 임명.

▲**韓利城**(경제75-79 베리아국제 대학원대학교 교수)=지난 4월 23일 서울성락교회에서 베리아국제 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에 취임.

▲**徐傳珠**(법학76-83 한겨레신문 교문)=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겨레신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南基烈**(행정81-83 前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법제처 차장)=지난 4월 19일 법제처장에 임명.



▲**潘長植**(행정83증 前정외대 국가균형발전 비서관·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지난 4월 19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명.



▲**安鎭元**(HPM 6기 부전대학교 교수·52사단 장병 고충처리 상담관)=최근 서울 화곡동 한국폴리텍 I 서울강서대학 상담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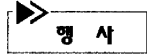
위촉.

▲**金孟喜**(GLP 11기 엠코아 대표)=지난 3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 대의원 선거에서 2007~2008년 총재



에 당선.

▲**金元慶**(HPM 18기 GE 헬스케어 서비스사업부 상무)=지난 4월 4일 GE 헬스케어 코리아 사장에 선임.



명사

▲**李信子**(응용미술50-55 우덕문화원장)=지난 4월 10~30일 서울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열린 한국심유미술가회 제11회



기획전에 출품.

▲**金載班**(회화56-60 한국미협·한국여류화가협회장)=최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해외선교연구센터(OMSC)로부터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Artist in Residence'로 초청받음.

▲**金春玉**(회화64-68 한국화여성 작가회장·인화대 겸임교수)=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북 완주 소 소양면 오스



갤러리에서 '자연·관계성'을 주제로 작품전 개최.

▲**孫菊任**(기악64-68 숙명여대 교수·피아니스트)=최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CD 출간. 또 지난 4월 17일 서울 예술의 전당



에서 열린 교향악축제에서 베토벤의 9번 협연.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한국공법학회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대법원에서 '협법살현

과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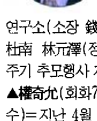
▲**金晶完**(장시71-75 가수)=지난 5월 3~4일 서울 순화동 호와아트홀에서 6년만에 단독 공연 '김정완 빈티지 콘서트-김정완입니다' 개최.



▲**徐在瑛**(회화71-75 부산비협 회원)=지난 4월 18~24일 서울 관훈동 모로갤러리,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해운대 갤러리 몽마르트르에서 수채화 개인전 개최.



▲**鄭仁淑**(법학73-77 모교 법학부 교수·법학연구소장)=지난 4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 법학교육백주년 기념관에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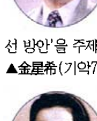


연구소(소장 錢英鎧)의 공동으로 杜南 林元澤(정치43-47)교수 1주기 추모행사 개최.

▲**權奇尤**(회화74-81 안동대 교수)=지난 4월 11~24일 서울 관훈동 학교재에서 '明鏡之筆-권기운의 실경산수'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蘇謙光**(지리교육75-79 경원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金星希**(기악75-79 한국브람스 협회장·피아니스트)=지난 4월 25일 서울 신문로 문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金恩喆(기악82증 요하네스뎀비 리더).



김지은(기악95-99 대법대 겸임교수)등분 등과 함께 한국브람스협회 제44회 정기연주회 개최.

▲**김태희**(국악91-95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지난 4월 18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심청가



발표회 개최.

▲**송호섭**(기악93-97 충남교향악단 수석주자·클라리네티스트)=지난 5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보크사, 단



제, 모차르트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다섯 번째 독주회 개최.

I 명복을 빕니다 I

申鉉鎬 前 국무총리



지난 4월 26일 申鉉鎬(경정제대43졸)前국무총리가 모교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7세.

白忠鉉 모교 명예교수



모교 교무처장·법대 학장·대학원장,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인권법학회 등을 지낸 白忠鉉(행정57-61) 명예교수가

▲**沈甲輔**(AMP 3기 삼익THK 부회장)=지난 4월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공기업 1급 고위직



인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비리는 규제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金泰安**(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4월 25일 전안시청 불사홀에서 천안시장, 네팔의 문화관광부



장관·노동부 차관·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왕실국립무용단 초청공연 개최.

고인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부흥부 장관, 동해전력·쌍용양회·쌍용산업 사장,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 장남 申鉉鎬(경제73-77)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위 沈永秀(의학63-69)모교 내과와 교실 교수, 成桂哲(의학67-73)모교 병원장, 차남 鄭錫(토목공학73-77)KCTC 부사장이 있다.

지난 4월 11일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1968년부터 2004년까지 법대 교수를 지낸 고인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아프리카인민권문제 특별보고관을 지냈으며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 부인 이명숙 전 연세대 치대 교수와 아들 백영재(인류88-92 CJ경영전략학 부장)등분, 백영진 씨가 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진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0-63)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장재(의학72-78)

△오영동(조선항공54임)

·김학숙(사회사업66-70)

△정계명(상학61-66)

△정팔도(AIP 1기)

△홍성태(의학57-63)

◆3억원

△이길영(의학51-57)

◆1억5천만원

△SNU에딩플래너센터

◆1억원

△강순진(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임)

△김분원(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원(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복(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안성립(행정학58-63)

△효우원(컴퓨터공67-71)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의학55-59)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의학46-49)

△이준행(컴퓨터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7)

△정윤환(인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컴퓨터공학59-64)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화장(컴퓨터공학58-64)

△홍상국(원예학83-87)

◆6천만원

△엄병윤(의과학60-64)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의학57-61)

△김종현(상학55-59)

△류명태(AMP 3기)

△미국철(공업교육68-72)

△안 훈(수의학53-57)

△유종현(법학50-54)

△이승준(컴퓨터공학67졸)

·이정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자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0졸)

△이종현(경제학59-6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장수(상학55-59)

△하건익(의학57-63)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송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이수범(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8)

△김일일(건축학61-65)

·최미혜(상학66-70)

△김재백(의학52-56)

△윤세국(경제학45-51)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1천2백만원

△이내원(화학교육58-62)

◆1천1백만원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서배(의학54-60)

△조내규(의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욱(의학55-59)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김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훈(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의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신안(중어중문64-6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강(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일섭(동물학55-60)

△김용중(의학64-71)

△김윤택(경대원68-70)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박시익(경성광전40-42)

△박상현(의학51-57)

△상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연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양배덕(전기공학57-61)

△이영기(사회학70-74)

△오병재(AMP 2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창공공학66-71)

△이병환(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우(법학58-62)

△이전구(인학60-64)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의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자준(의학70-77)

△조길웅(HPM 1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경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최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허성립(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조(AMP 1기)

△전북지부동창회
(이상 2005년 10월 1일
~2007년 4월 24일 출연)

◆1백30만원

△정주석(법학61-65)

◆1백만원

△김기영(ACAD 49기)

△박홍일(영어교육60-64)

△변종문(공업교육72-76)

△이상국(경영학86-90)

△임광환(농경학55-59)

◆30만원

△박정수(농공학61-69)

◆20만원

△배석일(행정학56-62)

△유태환(기계공학66-70)

△이재창(농학57-63)

△최병관(경제학57-61)

◆10만원

△박종열(대학원71졸)

△송완근(컴퓨터공학53-58)

△안영숙(가정교육52-56)

△여덕준(기계설계79-83)

△유신해(산업미술83-87)

△최성범(경영학78-82)

(이상 2007년 3월 24일
~4월 24일 출연)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7년 3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2. 7.~3. 4.)·일반(07. 1. 30~3. 4.)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학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구갑석 상대회 △김갑석 법대회
△김성기 문리회 △김인수 공대회
△김정배 공대회 △노희찬 AIC회
△문경은 약대회 △박홍기 상대회
△서진근 공대회 △서영우 공대회
△소진관 사대회 △송인형 공대회
△오병목 공대회 △유재소 공대회
△이 영 의대회 △이광희 문리회
△이원희 사대회 △이원우 문리회
△이윤경 사대회 △이호용 공대회
△임영철 차대회 △장영수 공대회
△조원환 사대회 △추수욱 상대회
△하동만 環대회 △홍성표 環대회

(일반)

△강강구 공대회 △강우석 HPM회
△강주봉 자연회 △강홍구 법대회
△곽 광자 가정회 △공금용 AIC회
△과 철 의대회 △권성연 의대회
△김광서 인문회 △김기성 인문회
△김기현 공대회 △김길수 상대회
△김대철 사회회 △김리서 의대회
△김명영 차대회 △김병식 약대회
△김성우 공대회 △김성형 차대회
△김수숙 법대회 △김순동 상대회
△김용서 농대회 △김윤경 공대회
△김정수 AIC회 △김정식 AIC회
△김정은 상대회 △김진현 공대회
△김철웅 차대회 △김창구 AMP회
△도민식 사대회 △맹성재 문리회
△문지영 자연회 △박민기 APC회
△박성득 법대회 △박성우 사대회
△박소영 법대회 △박영미 AIC회
△박복박 공대회 △박재순 大院회
△박종영 의대회 △박형봉 경영회
△박환선 음대회 △배상근 법대회
△백인창 AIC회 △변형식 공대회
△서갑수 공대회 △서구일 의대회
△서석계 의대회 △서성탁 법대회
△손순진 법대회 △손해목 법대회
△신민철 농성회 △신영호 공대회
△심상익 차대회 △심미옥 농성회
△양 우 AIC회 △양배서 사회회
△염영철 사회회 △오동영 공대회
△오승준 의대회 △원수현 사대회
△우경섭 AIC회 △위정숙 의대회
△유재소 공대회 △유우주 공대회
△유재기 사대회 △유은성 농대회
△이광원 AIC회 △이기명 자연회
△이남진 공대회 △이도형 AIC회
△이병연 문리회 △이병철 문리회
△이상수 자연회 △이상우 차대회
△이승우 공대회 △이용우 차대회

△이용한 의대회 △이유한 공대회
△이윤권 자연회 △이인규 법대회
△이장호 사대회 △이재민 大院회
△이재정 大院회 △이재현 농대회
△이정식 문리회 △이정진 공대회
△이종래 공대회 △이종의 농성회
△이찬승 사대회 △이정훈 공대회
△이태훈 자연회 △이현진 사대회
△이홍영 사대회 △이희석 사회회
△임계숙 농대회 △임동남 行務會
△임수익 의대회 △정광명 상대회
△장필상 의대회 △전선기 법대회
△전종은 의대회 △정기연 사대회
△정우영 의대회 △정태일 AMP회
△조규식 APC회 △조소라 사회회
△조태원 공대회 △조현기 공대회
△차중근 AMP회 △차희준 의대회
△채동훈 공대회 △채인식 법대회
△최기남 사대회 △최득수 공대회
△최방직 사대회 △최성원 경영회
△최영호 문리회 △최은숙 진호회
△최정숙 문리회 △최정숙 AIC회
△최정운 법대회 △최찬실 인문회
△최희선 사회회 △최희배 AMP회
△최정우 AMP회 △최현우 사회회
△한순현 사대회 △한현배 AIC회
△허순석 법대회 △허종관 농대회
△현승호 공대회 △황경수 공대회
△황민자 미대회 △황승희 미대회

이 사

◆인문대 △김인배회 △박현준회
△송기국회 △임은봉회 △최성락회
△현재복회
◆사대 △구영수회 △맹주석회
△박재하회 △박희영회 △이주형회
△이철취회 △임 철회 △임종순회
△장영연회 △전홍찬회 △한현표회
◆자연대 △김규준회 △김남수회
△이용화회 △이철의회 △정성규회
△한재우회
◆간호대 △박명자회 △박상연회
△박선애회
◆경영대 △박현수회 △오병은회
◆공대 △김영순회 △김은숙회
△최희철회 △최영준회 △최오훈회
△김교상회 △김대모회 △김대식회
△김명호회 △김명환회 △김성년회
△김성환회 △김영민회 △김정현회
△김원배회 △김원배회 △김종광회
△김종진회 △김경숙회 △김주용회
△김태양회 △김태준회 △김홍식회
△남인화회 △노태환회 △문영기회
△분희성회 △박근봉회 △박성락회
△박재홍회 △박찬모회 △박찬민회
△박정훈회 △방용일회 △배기은회
△배재홍회 △변은원회 △서우원회

△서일홍회 △석현수회 △성진동회
△손경업회 △송우길회 △양현승회
△아성준회 △유병환회 △유재근회
△유태환회 △윤 백회 △윤필문회
△이건명회 △이정훈회 △이계수회
△이관수회 △이대준회 △이동수회
△이병호회 △이무진회 △이법창회
△이범호회 △이상호회 △이성원회
△이승기회 △이광준회 △이필도회
△이재욱회 △이재은회 △이중재회
△이중호회 △이홍수회 △이환봉회
△이희승회 △이희철회 △임승진회
△전상백회 △정기숙회 △정명식회
△정순현회 △정조삼회 △정주희회
△조신취회 △조영주회 △진조철회
△차근오회 △최승주회 △최희철회
△한영희회 △함창표회 △현덕준회
△현희현회 △홍창표회 △홍영희회
△황이선회 △황해근회
◆농대 △박영철회 △금태삼회
△김관진회 △김남훈회 △김병동회
△김영강회 △김종태회 △김진석회
△나찬희회 △노기수회 △박우현회
△오세인회 △우관희회 △유병서회
△이정국회 △이범일회 △이성하회
△이시규회 △이현수회 △장 용회
△장석효회 △장정호회 △장봉진회
△정용규회 △최구주회 △최길환회
△현희승회 △홍순명회 △홍철홍회
◆문리대 △구영준회 △구태희회
△권병두회 △김진준회 △김관식회
△김광수회 △김규상회 △김동진회
△김상규회 △김양배회 △김영운회
△김용성회 △김정재회 △김종진회
△김종현회 △김철중회 △김치수회
△남기민회 △노진일회 △박영소회
△손재국회 △신건수회 △오동취회
△윤상철회 △윤호미회 △이경재회
△이기원회 △이영래회 △이원홍회
△이재형회 △이정운회 △이태남회
△임의선회 △임정민회 △임한조회
△임희갑회 △전용성회 △정연하회
△조완규회 △조원홍회 △전승철회
△최승언회 △최희준회 △최희진회
△하영준회 △하은욱회 △홍성훈회
◆미대 △박병기회 △이희숙회
◆법대 △강희철회 △곽노준회
△박 식회 △김경태회 △김동진회
△최선석회 △최종수회 △허 백회
◆음대 △김기명회 △김재미회
△김현숙회 △유봉준회 △이명희회
△이명옥회 △조창원회
◆의대 △고정환회 △김동은회
△김병수회 △김영태회 △김진조회
△김현우회 △박진조회 △박충하회
△석정우회 △손근찬회 △송명근회
△송영진회 △송희호회 △서기철회
△안영민회 △오영규회 △유위량회
△유병철회 △유영성회 △정영덕회
△정태원회 △조경환회 △최 황회

△이삼삼회 △이세창회 △이세훈회
△이수영회 △이우근회 △이희구회
△이인표회 △이종영회 △이춘성회
△이태현회 △이현국회 △임규운회
△장세득회 △정광준회 △정구영회
△정도철회 △정성봉회 △정우모회
△조순형회 △조용준회 △차정일회
△최병훈회 △최상철회 △최신석회
△최영관회 △한준국회 △한진유회
△홍성좌회 △홍세걸회 △황병인회
△황이연회 △황인민회
◆사대 △김관영회 △김광휘회
△김남조회 △김재현회 △김정훈회
△김종현회 △내병삼회 △박봉상회
△박봉배회 △박승준회 △박영오회
△박영지회 △박정숙회 △박희열회
△안상훈회 △안영규회 △유덕준회
△유지준회 △송영주회 △송용삼회
△윤익모회 △윤재봉회 △이병호회
△이상경회 △이안기회 △이원순회
△이원호회 △이희의회 △전상탁회
△전봉근회 △전필관회 △정동근회
△정준섭회 △최석진회 △최용준회
△하상기회 △홍성오회 △홍성욱회
◆상대 △김민수회 △김영규회
△강인식회 △김동영회 △김석근회
△김승훈회 △김정호회 △김종국회
△김정호회 △박영준회 △최길환회
△서영택회 △손석주회 △송우익회
△송인상회 △신병호회 △심재석회
△양해성회 △우진욱회 △이규환회
△이동현회 △이봉서회 △이세근회
△이진우회 △이희희회 △이태환회
△이현택회 △임응원회 △임종두회
△장병구회 △장필준회 △장윤문회
△정수운회 △정영국회 △정택순회
△정희영회 △최경식회 △최낙식회
△최동진회 △한덕수회

◆생태대 △천정희회
◆수의대 △김병중회 △김정영회
△박승준회 △배상준회 △석세조회
△이상우회 △장지훈회
◆약대 △강 서회 △공영석회
△공영주회 △강현욱회 △김광순회
△김성준회 △김정기회 △김진우회
△박기우회 △박창준회 △손선일회
△유래숙회 △차기영회 △최병식회
△최선석회 △최종수회 △허 백회
◆음대 △김기명회 △김재미회
△김현숙회 △유봉준회 △이명희회
△이명옥회 △조창원회
◆의대 △고정환회 △김동은회
△김병수회 △김영태회 △김진조회
△김현우회 △박진조회 △박충하회
△석정우회 △손근찬회 △송명근회
△송영진회 △송희호회 △서기철회
△안영민회 △오영규회 △유위량회
△유병철회 △유영성회 △정영덕회
△정태원회 △조경환회 △최 황회

△최규연회 △최동수회 △최복식회
△최정연회 △한덕준회
◆치대 △강효석회 △김경애회
△김규진회 △김성봉회 △김종철회
△남수원회 △민병대회 △박옥련회
△신일규회 △유태영회 △이경모회
△이윤상회 △이진근회 △임찬용회
△정건용회 △정환남회 △조유동회
△조인호회 △최나준회
◆대학원 △박종영회 △안부혁회
△정남식회
◆경대원 △이문재회
◆교대원 △윤종찬회 △장석민회
◆보대원 △김윤진회 △민병찬회
△박종안회 △안상선회 △이형구회
△전태균회
◆사대원 △김창식회
◆한대원 △김익영회 △김희동회
△박범재회 △이석열회 △이영태회
△주병덕회 △허낙식회
◆한대원 △정병철회
△박준배회 △박정일회
◆AMP △고희선회 △권기술회
△김영태회 △박영수회 △박우재회
△박진수회 △송병준회 △유신락회
△이윤표회 △이형구회 △정영동회
◆AIP △이창규회 △위중환회
◆ACAD △권성진회 △이덕수회
△진강현회 △홍갑수회
◆SGS △김덕우회 △박민길회
△오현봉회 △정종현회
◆APC △이용배회
◆HPM △안병광회 △유민보회
△정창기회 △주영진회
◆AIC △김광훈회 △김영태회
△윤재영회 △최근수회
◆AFB △김명호회

일 반

◆인문대 △김기화회 △김대환회
△김대환회 △김덕철회 △김성형회
△김의철회 △김익진회 △김인근회
△김현구회 △김환근회 △김희정회
△남유진회 △박승호회 △박진혁회
△변성수회 △서세림회 △서태영회
△송재종회 △유경숙회 △은대근회
△윤상범회 △유희경회 △이상우회
△이상원회 △이원희회 △이준호회
△이현욱회 △이한범회 △임주규회
△장대철회 △정영덕회 △최정락회
△최동규회 △홍재범회
◆사대 △박병안회 △김규진회
△구길모회 △권민용회 △권순목회
△권태환회 △김광재회 △김남일회
△김상진회 △김진진회 △김종태회
△김용일회 △김재욱회 △김재형회
△김재현회 △김준범회 △김찬규회

▲김대환 ▲김동익 ▲김복영 ▲김복원 ▲김복지 ▲김성룡 ▲김성민 ▲김세종 ▲김성진 ▲김인식 ▲김영균 ▲김영태 ▲김용대 ▲김윤호 ▲김원주 ▲김정기 ▲김정호 ▲김진표 ▲김정성 ▲김지호 ▲김진국 ▲김진홍 ▲김정규 ▲김정진 ▲김대규 ▲김백수 ▲도동락 ▲김영현 ▲박재홍 ▲박재현 ▲문동후 ▲문정삼 ▲박세철 ▲박찬환 ▲박요진 ▲박지태 ▲박희준 ▲박희준 ▲박지영 ▲박현서 ▲박현서 ▲방규성 ▲방영민 ▲배대근 ▲배삼수 ▲배진철 ▲송정호 ▲송진호 ▲신광필 ▲신복록 ▲신수영 ▲신한정 ▲신요련 ▲신병연 ▲신한준 ▲안대규 ▲안대현 ▲안영민 ▲안병현 ▲배준호 ▲이문선 ▲배지희 ▲임승찬 ▲임영숙 ▲오정호 ▲오정호 ▲오영돈 ▲오영준 ▲오정호 ▲오영환 ▲유문익 ▲유우영 ▲유우해 ▲유태길 ▲유재승 ▲이명재 ▲이규환 ▲이대영 ▲이대원 ▲이동환 ▲이민수 ▲이성갑 ▲이은복 ▲이영의 ▲이원기 ▲이재관 ▲이재규 ▲이재현 ▲이재관 ▲이종주 ▲이진우 ▲이창범 ▲이재주 ▲이태일 ▲이태희 ▲이한준 ▲이해진 ▲이호연 ▲이상기 ▲이상숙 ▲이완기 ▲정민준 ▲정삼재 ▲정문영 ▲정홍선 ▲정진영 ▲정성호 ▲정규상 ▲정경원 ▲정소희 ▲정의종 ▲정철민 ▲정준영 ▲정지태 ▲정남원 ▲정복직 ▲조영동 ▲조영성 ▲조왕재 ▲조상혁 ▲조세석 ▲조주은 ▲조지민 ▲조해현 ▲주경진 ▲주기식 ▲주석영 ▲주성원 ▲주진우 ▲주희숙 ▲주희준 ▲최기원 ▲최기산 ▲최소현 ▲최희정 ▲최화준 ▲한현수 ▲한민조 ▲황준우

◆사대 ▲강길선 ▲강진홍 ▲강민숙 ▲강의정 ▲김두현 ▲김경철 ▲김기호 ▲김기호 ▲김수연 ▲김우영 ▲권경원 ▲권경원 ▲김광문 ▲김광철 ▲김경선 ▲김기정 ▲김광식 ▲김봉민 ▲김보호 ▲김성수 ▲김성진 ▲김영태 ▲김소래 ▲김영애 ▲김성준 ▲김용범 ▲김재성 ▲김정현 ▲김종식 ▲김준호 ▲김종자 ▲김정경 ▲김철환 ▲김철원 ▲김택중 ▲김학식 ▲김학진 ▲김형구 ▲김형주 ▲남한식 ▲노희희 ▲유은선 ▲이병관 ▲이성희 ▲이석국 ▲박기웅 ▲박영준 ▲박유준 ▲박지남 ▲박지원 ▲박지우 ▲박희준 ▲방영선 ▲배규림 ▲배영범 ▲배유승 ▲변영희 ▲변재용 ▲변희준 ▲봉준모 ▲서근원 ▲서문준 ▲서인경 ▲서진희 ▲서수일 ▲소복관 ▲신문섭 ▲신승기 ▲신용우

